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임철우 『봄날』의 재현 형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주 선

임철우 『봄날』의 재현 형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 In Lim
chulwoo's Novel: 'Spring Days'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주 선

임철우 『봄날』의 재현 형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주 선

김주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오문석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신형철 (인)</u>
위원	광주대학교 교수	<u>이기호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차승기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형중 (인)</u>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7
II. 본론	15
제1장 『봄날』의 재현적 의미	15
1) 신군부의 권력 의지와 광주	15
2) 공수부대의 폭력성	17
3) 시민/민중의 저항성	22
4)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상잔의 비극과 극복	27
제2장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과 체험적 성격	32
1) 재현적 의미를 침범하는 이미지적 서사	33
2) 장후내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39
3) 장후간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43
제3장 재현적 의미의 다층성과 종결 없는 생성	47
1) 폭력성과 그 의미론적 증식	49
2) 저항성과 그 의미론적 증식	63
3) 상잔의 비극과 극복의 의미론적 증식	90
III. 결론	92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 In Lim chulwoo's Novel: 'Spring Days'

Kim Ju Seon

Advisor : Prof. Kim Hyoung Ju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 of representation in Lim Chulwoo's *Spring Days*. Unlike commonly known, *Spring Days* is not an accumulation of records to generally represent May 18th. Rather, *Spring Days* is a novel aiming to make readers experience the event May 18th as sense impression and to proliferate the semantic dimension of the incident of May 18th, endlessly. All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form of *Spring Days*.

The narrative of *Spring Days* progresses focusing on the dynamic scene or view, consists of minute and detailed hyper-realistic description and is filled with sense impression. Excessive descriptions always make readers concentrate on the form of the characters' movements, psychology and spatial background rather tha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narratives, and the metaphors, adjectives and adverbs that would make the readers feel the shapes and states of things, more sensuously, too, appear throughout simultaneously, which makes them each scene shown by the novel felt like a photo or video. The scenes created by the narratives of *Spring Days* become epiphanized vividly like images. Moreover, *Spring Days* has few semantic narratives that can describe or provide scenes of image, and even the narratives exist eroded because of the overwhelming descriptions. In other words, the narrative of *Spring*

Days is not a representational narrative of an event, but a narrative that allows sensation/perception of the event on the dimension of sense impression. Most of the scenes drawn in *Spring Days* are literally 'drawn.' Narrative of image in *Spring Days* is the core that produces an experiential nature. Scenes of sense impression create affection of (emotional/physical) transformation that shows the readers' affect and the situational transition of the affect and make the reader have intensive experience. At this time, this intensive= affective experience becomes unruly and proliferates constantly when not seized by a semantic narrative. *Spring Days* makes the reader's body move microscopically.

The principle by which the semantic dimension is created in *Spring Days* is the reiteration of similar narratives of image. What plays as a kind of quilting role in *Spring Days*, which absolutely lacks semantic narrative that plays a structural role in the form of a general novel, is just the repetition of similar contents. *Spring Days*, comes to have a representational meaning by a certain interpretant that appears in the repetition, but eventually by the interpretation of readers, and the narrative of image newly generates representational significance, changing its identity because of the very characteristic of image. Since the interpretant does not exist through a kind of structure or grammar that realize a narrative, but is derived from a narrative of image, it has an immanent relation with the narrative of image. Yet, the semantic dimension of *Spring Days* cannot have any authority due to its characteristic of image and does not come to an end in reverse.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of May 18th created by *Spring Days* proliferates endlessly.

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임철우의 『봄날』은 과소평가 되었다. 『봄날』을 다룬 연구와 평론은 몇 되지도 않는데 『봄날』의 학술적 의미를 밝힌 연구는 그 중에서도 손꼽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봄날』은 5.18에서 살아남은 임철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록물에 불과하다. 작가의 말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의 충실성과 5.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은 연구의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알리바이가 되었다. 이후 『봄날』에 대한 임철우의 글이나 이런저런 대담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강화하는데 한 몫 했을 것이다.

역사적인 실재 사건을 소설로 다루는 데는 작가의 상상력이란 필수적이면서 또한 위험 부담을 따른다. 사실과 상상력—그 둘 사이에서, 적어도 이번 소설에 관한 한, 나는 최대한 사실성에 의지하려 했다.

(……)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로서는 이것이 단지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하나의 기록물로서도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써왔던 것이다.¹⁾

물론 『봄날』은 증언소설이다. 증언소설로서의 『봄날』은 역사적 사실성을 지향한다. 임철우가 소설을 쓰던 당시에도 5.18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왜곡되어 존재했다. 항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폭도였고 온갖 비방과 날조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으며 책임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시간은 1980년 5월 광주를 비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임철우는 필사적으로 사실적이어야만 했다. 『봄날』을 쓰기 위해 5.18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강박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했다. 도대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군부가 앞세운 공수부대의 폭력은 얼마나 끔찍했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려야만 했다. 그것이 임철우가 생각하는 5.18에 대한 증언 소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5.18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형언할 수

1)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1997, 13~14쪽.

없는 광경들, 총·칼을 든 공수부대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백병전을 치른 시민들의 모습을, 그 내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5월 20일 밤부터 새벽녘까지, 노동청 앞에서 백병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손의 시민과 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격돌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내 중심가에는 전기가 완전히 나갔어요. 그리고 문화방송 건물이 통째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지요. 그 불빛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마침 계엄군은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만 집결해 방어 중이어서, 시내 중심가로 가까이 갈수록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는데, 거리가 온통 만원 버스처럼 뻥뻥이 차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앞으로 떠밀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페퍼포그가 터지고 진압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그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열흘 기간을 통틀어 가장 극렬하고 처참한 시가전을 순전히 육탄전으로 시민들은 치러냈던 것이지요. 수많은 이들이 그날 밤 거리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 그 일을, 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야말로 미친 듯 몰려서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결국 계엄군은 그다음 날 도청을 내놓고 퇴각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의 싸움에서 계엄군은 무너진 거지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혹 꿈이었을까,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 가끔씩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면 또 마구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에는 나 같은 겁쟁이도 막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기이한 일이지요.

(……)

……제 나름의 리얼리즘은 인물 내면의 중요성,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나 내면 심리를 얼마나 제대로 포착해내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아주 먼 얘기 같아도, 한때는 소설 기법에 있어서조차 리얼리즘/모더니즘을 대단히 좁은 시각 안에 가둬놓고 논의하던 시절이 있었지요.……하지만 당시에도 저는 그런 편협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인물 내면의 심리, 내면의 리얼리티 역시 당연히 문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봄날』에서도 세계는 그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었어요. 기사, 르포, 구술사로 담아낼 수 없는, 문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지요.²⁾

그러니까 『봄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만을 최대한 그려내려 한 증언소설이 아니다. 임철우의 『봄날』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심리, 즉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담아내려 한 소설이다. 저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짓말” 같은 상황, 육탄전으로 공수부대를 몰아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항전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내면은 “기사, 르포, 구술사”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오직 문학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봄날』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소설 언어는 어떻게 기적을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봄날』의 형식을 주목해야 한다. 『봄날』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적 서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야 한다. 여기에 『봄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기적을 그리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 『봄날』은 이미지적 서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³⁾하게 하고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재현⁴⁾적 의미를 모델적 차원에서 종결 없이 생성한다.⁵⁾ 이미지적 서사는 비슷한 내용의 반복을 통해 의미론적 차원을 증식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어떤 정동 affect의 차원을 증폭시킨다. 정동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규제되고, 이미지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봄날』의 기록성과 작가의 죄의식에 천착해 있거나, 『봄날』의 재현 형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먼저 박옥심은⁶⁾ 『봄날』을 광주항쟁의 형상화로 정리하고 극한상황에서의 체험의 총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내려는 작가가 소설의 기록적 성격으로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이 어떻게 체험의 총체가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체험의 총체를 되살려냈다는 것인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2) 임철우·김정환, 「아래로부터의 문학사」, 『실천문학』, 2013 겨울, 89~99쪽.

3) 여기서 ‘체험’은 ‘경험’과 달리 쓰인다. 경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구성적으로 종합하는 표상, 재현의 차원에 존재하지만 ‘체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이 명료하게 의식화되기 이전의 감각적이고 질적인 차원에 한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할 것이다.

4) 재현은 한 대상에 대한 의식의 정립적 종합 활동이며 동일성, 유사성, 유비에 의해 구성된다.

5) 이는 『봄날』의 서사가 어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열려 있는 의미론적 다면체라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해석을 정립시킬 수 있는 몇몇 의미론적 서술을 초과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의미론적 층위 자체를 결코 명료하게 만들 수 없다. 『봄날』에서 의미론적 차원을 만들어내고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 같은 비슷한 내용의 반복은 이를 간신히, 일시적으로 허락한다. 『봄날』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재현적 의미는 『봄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결코 고정시키지 않는다.

6) 박옥심, 「임철우 소설에 나타난 광주항쟁 형상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5. 석사학위 논문.

서영채⁷⁾는 『봄날』이 카메라 역할을 하는 시점인물들을 통해 광주항쟁의 총체상을 재현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봄날』에 나타나는 무고한 죽음과, 시민들의 유대감, 도청 최후의 날에서 보이는 좌절된 희망, 신군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계엄군 사병들의 심리적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성민엽⁸⁾은 각각의 장에 서술된 초점화자의 내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봄날』이 보여주는 진실은 각 개인들의 내면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마다 다른 개인들의 내면을 꼼꼼히 분석하며 『봄날』은 광주항쟁이라는 불의 체험을 통해 자연상태의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녔던 인간다움(저항, 연대 등)의 회복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판단한다.

심영의⁹⁾는 『봄날』의 주된 특징이 작가의 증언 욕망에 있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봄날』의 형식적 특징인 연대기적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을 현실의 내용이라고 믿게끔 만든다. 이때 『봄날』의 소설성과 기록성은 『봄날』이 소설 담론과 역사 서술의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다. 그러나 그에게 『봄날』은 사실 기록의 의도가 지나쳐 소설의 구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증언소설이기도 하다.

왕철은¹⁰⁾ 『봄날』을 비롯한 임철우의 모든 소설이 작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발현이라고 본다. 그에게 『봄날』은 기록문학을 지향하고 사실묘사에 치중한 나머지 소설적인 요소를 소홀히 한 작품이다. 여기서 ‘소설적인 요소’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제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봄날』은 반복적이고 산만한 내러티브를 가진 기록물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묘사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현식¹¹⁾은 봄날의 의의를 5.18에 대한 모범적 실록문학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봄날의 진정한 성과는 5월 그날을 최대한 기록하고 이를 다중화자의 시점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사실성을 더욱 강화한 데 있다. 그러나 그에게 『봄날』은 인물들 간의 드라마성이 미약하고 5월 항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 작품이다.

전성욱¹²⁾은 『봄날』을 임철우의 죄의식과 진실에 대한 강박이 만들어낸 역사적 소명의

7) 서영채, 「『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8) 성민엽, 「불의 체험과 그 기록」,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2004.

9) 심영의,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박사학위논문.

10) 왕 철,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11) 이현식, 「1980년의 봄날로 가는 고통과 희망의 기록」, 『실천문학』 1998 여름

식의 형이상학을 보여주는 유기적 재현 소설이라고 단정한다. 그에게 5월 광주에 대한 진정한 서사는 대상을 동일성의 논리로 표상하는 재현의 기획이 아니라, 표현(들뢰즈)의 기획에 의해 펼쳐져야 한다. 표현의 서사는 재현의 서사에서 빠져나가나는 차이와 변이들의 마주침에 대한 지향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자의식적 서술, 치밀한 심리 묘사, 교차 시점 등의 서술적 기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봄날』은 표현의 기획과 정반대에 위치한 재현 소설, 유기적 소설, 연대기적 소설, 작위적인 서사의 소설, 기록 소설에 불과하다.

정명중은 『봄날』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의 논문은 앞선 연구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그는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 『봄날』 읽기」¹³⁾에서 군중의 분노가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해 탐문한다. 그가 『봄날』에서 찾아낸 것은 ‘불씨’인데, 그는 『봄날』이 분노와 저항의 연관관계를 서정적인 형태(‘불씨’라는 이미지)로, 즉 인과관계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불씨”는 개인의 관개체적 성격(스피노자)과 억압 불가능한 최소 상태(인간의 절멸 불가능성)에 대한 기억 또는 그것의 (재)발견이라고 주장한다.

정명중의 또 다른 논문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 5월소설 속의 ‘롬펜」¹⁴⁾은 『봄날』을 통해 저항의 정치학이 구성되는 지점을 탐사하고 있다. 그는 무석, 한기, 철수, 봉배를 롬펜(땀스)으로 규정하며 그 중 무석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5.18이라는 사건을 겪는 무석의 반성적reflective 능력의 결여가 그를 수동적 정념에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고 결국 죽음을 결단하는 저항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바로 그 반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야말로 도래할 이념의 원천임을 주장하며 ‘오월’이 다시 사유되고 갱신되는 일은 이 지점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봄날』을 통해 군중의 분노와 사회변혁의 관계를 찾으려 하고, 저항의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려 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에는 『봄날』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재하며 대부분의 연구는 『봄날』의 기록성과 작가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기한 『봄날』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호웅¹⁵⁾의 평론은 짧지만 시사적이다. 그는 『봄날』의 특성이 비슷한 내

12) 전성욱,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동아대학교 2013 박사학위논문.

13)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14) 정명중,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 5월소설 속의 ‘롬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용의 반복에 있다고 본다. 『봄날』의 반복은 『봄날』에 ‘소설적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종의 의미론적 구조를 생성하며 『봄날』을 단순한 기록물에서 해방시킨다. 그가 밝혀낸 『봄날』의 의미는 폭력에 맞서는 ‘인간’과 ‘민주’, 따뜻하고 그리운 모성, 그리고 증오로부터의 해방이다. 물론 정호웅의 짧은 글은 『봄날』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주지 않고, 『봄날』에 나타난 수많은 의미론적 연관을 설명하지 않는다.

양진오¹⁶⁾의 연구는 지금까지 제출된 『봄날』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그에 따르면 증언 문학으로서의 『봄날』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봄날』은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간 순으로 쓰여진 연대기적 소설이지만, 각 장들의 내용은 동시적이며 중층적이다. 각 장들의 관계는 서로 대화하는 열린 관계이자 역동적 관계다. 이것이 『봄날』의 구성적 특징이다. 둘째, 『봄날』은 사실적 재현인 동시에 감각 지향적인 언어의 재현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촉발시키는 한편 광주항쟁에 관한 독자들의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심리적 반응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사회적 인식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봄날』의 감각 지향적인 언어가 신군부와 시민들의 이미지적 대립을 낳는다고 본다. 그는 죽음·피의 이미지와 불씨의 이미지를 대립시키며 불씨는 저항의 이미지, 부정한 것에 대한 분노, 인간에 대한 지순하고도 소박한 사랑, 행복감과 완벽한 평화로움의 상징이 되며, 이 이미지성은 5.18의 비극을 더 강하게 인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셋째, 『봄날』은 작중 인물들의 시점에 의해 구성되는 5.18에 대한 진실이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의 시점을 읽어내는 작업은 5월 광주에 대한 여러 의미론적 접근이 된다. 양진오는 무석, 명기, 명치의 시점을 중심으로 『봄날』을 분석하며 5월 광주는 추한 현실, 죄의식을 지니게 하는 사건, 추악한 범죄라고 정리한다. 즉 양진오는 『봄날』의 장들이 갖는 특징과 『봄날』의 (의미론적 서술이 아니라)감각적 서술이 갖는 이미지적 특징,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이 지닌 특징을 통해 『봄날』의 형식적 원리를 나름대로 규명하고 『봄날』에 나타난 5.18의 성격을 보여줬다. 그러나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만들어내는 각 장들의 다층적 관계는 『봄날』의 구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고, 세 명의 주요 인물을 통한 5월 광주에 대한 설명은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봄날』의 의미론적 차원을 축소시킨다. 『봄날』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논의는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그의 분석은 『봄날』의 문체 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진오 역시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갖는 여러 성격을 정교하게 간파하진 못했으며 『봄

15) 정호웅, 「기록자와 창조자의 자리—임철우의 『봄날』론」, 『작가세계』 1998 여름

16) 양진오,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 열림원, 2003.

『봄날』의 내용이 보여주는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일부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봄날』의 재현 형식이 갖는 체험적 성격과 의미론적 차원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확인되었다. 본고는 『봄날』의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의미론적 연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봄날』은 재현과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은 소설임이 드러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임철우의 『봄날』은 증언 소설이다. 그는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소설을 썼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의 시·공간적 정황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적 정황과 일치한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소설 속의 상황은 임철우가 각주로 설명함으로써 사실로 복귀시킨다. 그의 소설은 분명 역사적 ‘사실’에 육박한다. 그런데 『봄날』에 나타난 사실은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과 그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기록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공간적 배경과 사건의 성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봄날』은 5.18의 성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채로 나타낸다. 임철우는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서술을 최소화한다. 『봄날』에서 5.18은 감각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수많은 문장을 꺾어 지배할 수 있는 틀의 부재는 『봄날』이 보여주는 5.18을 5.18 그 자체로서 겪게 만든다. 『봄날』의 목적은 우선 5.18이라는 사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5.18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임철우의 고백에도 나타난다.

“내가 말하는 ‘총체적 진실’의 목록은 이를테면 세세한 상황일지, 전개과정, 배후 책임자 규명,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평가 따위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었다.……작가로서 내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열흘 동안의 시간과 그 도시의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들이었다. 즉 80만 시민들이 겪어낸 공포와 분노, 고통과 슬픔, 절망과 환희의 순간들을, 말하자면 그 실존적 극한상황에서의 체험의 총체를 소설 속에 최대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일이었다.”¹⁷⁾

17)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2000 여름. 이러한 열망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하다. “……초반 사흘, 18일 날 아침부터 20일 날 밤 21일 새벽까지, 광주 시민들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이나 설명을 동원하더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온몸으로 확인했던 그것을, 그 엄청난 과정을 생생히 구현해내자. 그런 생각으로 달려들었다.” 임철우 외,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

그런데 익히 알다시피 삶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잉여를 남긴 채 쓴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언어는 애초부터 어떤 흐름으로서의 삶에서 그 일부를 절단하고 응축시켜 존재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삶을 구획 짓고 구성하게 하지 체험하게 하진 않는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소설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5.18을 ‘정면으로’¹⁸⁾ 증언하는 동시에 체험하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재현 할 수 없어(물론 언어는 언제나 어떤 것도 완벽히 규정할 수 없지만) 보이는 5.18의 사건성은 어떻게 해야 재현 가능한가. 수많은 개별적 존재들의 내면과 집단적 상황,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과 그 무게는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는 언어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fact’은, 그리고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고思考는 결국 언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분명 언어는 삶의 무차별적인 흐름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수단이다. 이는 수사가 아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니피앙의 활동 없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로 지시될 수 없는 현실은 버팀목을 잃은 채 무차별적인 흐름으로 전락한다. 언어를 통해 비언어적인 것을 전달하는 방식의 발명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을 정면으로 다루는 『봄날』은 체험을 어떻게 소설화한 것인가. 『봄날』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

『봄날』은 에필로그를 포함해 8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 초입에는 시나 성경 구절, 희생자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 신문 기사,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의 발언 등이 제사(題詞)로 등장해 그 장의 통일적 내용과 감각적 관계를 맺는다. 장은 시간 순으로 병렬되어 있지만 단속적이다.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장 속의 초점화자와 시·공간적 상황이 변화하고 어떤 경우 특정한 시간과 장소는 여러 인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입체적으로 중첩되기도 한다. 한데 소설 속의 여러 상황은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존재한다. 『봄날』의 서사는 동적인 장면이나 광경 위주로 진행되고 세세하고 촘촘한 극사실주의적 묘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틀린 감각 인상적으로 채워져 있다. 과도한 묘사는 언제나 독자에게 서사의 총체적인 파악보다 인물들의 움직임, 심리, 공간 배경 등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이미지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회』, 2014 여름, 349쪽.

18) 『봄날』 이후, 아니 어쩌면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이후, 증언과 관련한 많은 작품이 한 시대의 헤게모니적 정신 속에서 언어 자체와 재현을 문제 삼으며 존재했다. 그러나 비언어적 증언과 재현 불가능성에 바쳐진 증언, 그리고 분위기로써 5.18(을 비롯한 여러 거대한 사건)을 환기하는 일부 소설들은 그 소설 자체의 성과와 무관하게 5.18의 실제 상황과 그 속에서 간파할 수 있는 여러 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사물의 형상이나 인물들의 행위 및 사태를 더욱 감각적으로 느끼게 할 비유와 형용사, 부사 역시 『봄날』 내내 다발적으로 출현하여 소설이 보여주는 장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처럼 느끼게 한다. 『봄날』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마치 이미지처럼 생생하게 현현(epiphanic)된다. 게다가 『봄날』은 수많은 장면들을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의미론적 서술이 적고, 심지어 압도적인 묘사로 인해 그 서술마저 침식되어 존재한다. 때문에 『봄날』의 서사는 사건에 대한 재현적 서술이 아니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해주는 서사다. 『봄날』에 그려진 대부분의 장면들은 말 그대로 ‘그려져’ 있다. 『봄날』의 수많은 장면들은 이미지적으로 존재한다. 이미지성은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관련해 핵심적이다.

브라이언 마수미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수용한다. 하나는 저마다의 방식에 의해 수용된 이미지의 다층적인 의미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지가 만들어 낸 감각적 차원의 효과의 세기 혹은 지속으로 표현되는 강도, 곧 정동(affect)이다. 그런데 이미지의 수용에는 정동(강도)이 가장 우선한다. 정동(강도)은 언제나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가령 개인과 이미지 사이에서) 비의식적 수준의 감각들이 서로 참여하고 있음을 함축한 채 초기발생 하는 것이고, 초기발생의 작용이자 표현이며 선택의 기원이다. 이미지의 특질을 고정시키는 형식/내용적 차원의 의미화나 코드화는 정동을 감산하고 제한하며 등장한다. 정동은 자격이 부여되고 위치가 정해진 지각과 인식에 의해 포획되고 갇힌다. 잠재적 상태인 정동은 의식에 의해 걸러지며 현실화된다. 때문에 의미화 질서와 정동(강도)의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둘의 관계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둘의 관계는 의미화 질서에 대한 순응과 불응의 관계가 아니라 공명·증폭 혹은 저해·방해의 양상을 띤다.

예컨대 의미화 질서가 의미론적 차원에서 완결되면 감상자의 정동은 더 이상 자극되지 못한다.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은 결국 자기동일적인 집합 속에서 정지된다. 조직화된 세계, 구조화된 세계는 구체적인 정동을 삭감한 추상적 세계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태들은 불변의 질서 속에서 예측 가능하다. 의미화 질서가 형성한 감정의 차원은 이와 다르지만 비슷하다. 감정emotion은 정동의 가장 수축된(가장 강렬한) 표현이다. 감정은 정동을 규격화한 결과다. 한데 감정은 주관적 내용으로, 경험의 질적 차원을 객관적 실재로서의 재현적 관념에 의해 고정하는 것이다. 감정은 틀에 박혀 있다. 감정은 의미론적이며 기호학적으로 형성된 진행과정 속으로, 내러티브화 할 수 있는 회로 속으로, 기능과 의미 속으로 강렬함이 삼입된 지점이다. 그것은 인식되고 고정된 강렬함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행 중인 정동과는 다르다. 감정은

미시 체험의 차원을 하나의 객관적 경험으로 번역한다. 감정은 완전히 체험된 관계보다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차원의 작동을 명시한다. 하지만 감정을 형성한 포괄적인 분위기나 느낌(feeling, 즉 재현적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은 미분화된 ‘감정적’ 특질의 ‘복합성’을 만들어낸 내용, 혹은 내용의 흐름은 그들끼리 충돌하고 중첩되며 진동한다. 달리 말해 일상적 경험에서 분노의 긴장과 흥분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분노로 ‘파악’된 감정 때문이 아니다. 분노는 그것이 발생하게 된 순간에 소속되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순간에 소속된다. 분노로 파악된 감정은 그것을 끌어가는 현실적인 말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동적 차원의 배경을 통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충돌하며 유지된다. 즉 이미 고정되어버린 감정 자체가 정동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존재하는 배경, 지각되지 않는 배경에 연속되는 어떤 잠재적 차원의 사건이 정동의 질적인 차원을 실어 나른다. 감정은 이 같은 이행의 경험적 소실점이다. 소실점에는 확장적 전이가 없다.

따라서 이미지와 연관된 내러티브의 경우 의미론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덧붙여질 때(감정의 상태를 명료하게 지정할 때에도) 강렬함은 꺾인다. 이미지 내러티브에 객관적 설명과 해설이 덧붙여질수록 감상자의 정동은 고요해진다. 반면 내러티브 속의 어떤 말이나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적’ 특질이 자신의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깨트린다면 감상자의 정동은 증폭된다. 감정적 특질은 내러티브의 선형적 진행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킬 만큼의 강도를 가짐으로써 감상자의 정동과 공명한다. 내러티브 속의 언어적 표현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적 내용은 고정된 의미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감상자의 예상과 기대를 배반하거나 초월함으로써 감상자를 자극한다. 그 때에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 같은 모순적인 감정의 공존도 정동을 배가한다. 때문에 감각 인상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이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따라 감상자가 겪게 될 정동의 강도가 달라지며, 체험의 강도는 감상자의 정동이 자극되어 증폭될 때마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그렇다면 『봄날』의 이미지적 특징은 체험적 성격을 한없이 끌어올린다. 『봄날』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장면들은 다의적으로 존재함에도 결국 어떤 의미론적 재현 속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은 채 감정적 차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정동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특질은 독자에게 어떤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설 새 없이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깨고 정동과 공명한다. 문

19) 이미지와 정동, 감정의 관계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계』,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1, 46~68쪽; ———, 『가상과 사건』,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6, 119~120쪽. 참조.

장과 문장의 연속, 장면과 장면의 연속은 독자에게 어떤 충격을 주며 제 체험적 성격을 강화한다. 『봄날』은 독자의 정동을 끊임없이 날뛰게 만들려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체험적 성격이 극대화된 작품이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독자의 몸을 어떤 긴장과 강렬도 속에 빠트린다. 원고지 7000여매에 이르는 이미지적 장면들은 장과 장의 관계 속에서, 장을 초월하여 지시되는 어떤 장면이나 인물들의 심리, 상황에 대한 이미지적 서사 속에서 어떤 감정적 특질과 정동affect을 끝없이 쌓아나가며 5.18이라는 사건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체험성을 무한히 변화시키고 움직인다. 『봄날』은 5.18이라는 체험적 사건에 대한 소설적 구성이자 소설의 체험적 구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봄날』이 5.18에 대한 규정된 의미론적 연관관계로서 존재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봄날』에 대한 몇 되지도 않는 연구를 편향되게 만들었다. 『봄날』의 이미지적 특성은 『봄날』을 역사적 기록물로 환원시켰고, 역사적 사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다소 무리한 시도를 한 소설로 격하되게 했으며, 『봄날』을 임철우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산물로 규정짓게 만들었다. 의미론적 관계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않았던) 체험을 위한 소설이, 임철우의 (비)재현적 모험이, 소설 『봄날』을 작가의 몇 마디에 종속되게 만든 셈이다. 그런데 사실 그 길고 긴 장편에서, 그리고 5.18이라는 하나의 첨예한 사건성에 대해서, 임철우가 아무런 의미론적 재현 관계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단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봄날』에서 5.18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설명과 의미론적 서술이 전무한 것도 아니고 뭣보다 이미지적 서사에서 의미론적인 층위를 분석해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8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반드시 소설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현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전체는 여러 장에서 전개되는 이미지적 서사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이미지적 서사의 다양한 이행에서 발생할 의미를 규제하는 거대한 관계망으로 존재한다. 전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의 장은 다른 모든 장과의 연관 속에서 아무런 의미연관도 얻지 못한 채 부유할 뿐이다. 이미지적 서사의 접촉은 전체의 관계성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념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각각의 장은 다른 장들과 접촉할 때마다 『봄날』 전체의 차원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며 의미론적으로 갱신된다. 본고는 『봄날』의 이 같은 형식적 특징을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이라고 정리한다.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이라는 정리는 저 유명한 들뢰즈의 『시네마1 운동-이미지』의 운동-이미지로서의 플랑plan개념을 모델링한 것이다. 운동-이미지로서의 플랑 개념을 설명하려면 먼저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는 우선 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의 순간들을 무수히 분할시키고 그 단면의 종합을 통해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추상적 관념이다. 예컨대 말의 운동을 카메라에 담아 분할된 사진의 종합으로 파악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 말이 뛰어가는 장면들을 연속으로 촬영해 이를 늘어놓음으로써 말의 운동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순간들의 질적 연속성을 배제한다. 말의 운동은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분절함으로써 분석될 수 없다. 말의 운동은 매번 나뉠 때마다 그 속성이 변화된다. 말의 운동이 가로지른 공간들은 모두 하나의 균질적인 공간이지만 운동들은 서로 이질적이므로 서로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운동은 끝없는 변화다. 들뢰즈는 바로 이 운동의 연속적 다양성을 베르그손의 개념을 빌려와 ‘지속’이라고 칭한다. 지속은 끝도 없이 나누어지나, 본성상의 변화 없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지속은 전체와도 관련이 있다. 지속의 운동은 언제나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포함하는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체는 지속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의 집합이 되 분할의 매 단계마다 자신의 성질을 바꾸며 분할된다. 실제적 전체란 나뉘지 않는 연속성이다. 전체는 어떤 질적인 상태의 집합을 또 다른 질적인 상태의 집합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를 끝없이 재창조한다. 전체의 운동은 닫힌 체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동적인 단면의 운동이다. 이때 지속으로서의 운동이 끝없는 이행, 끝없는 변화라는 점에서 정동affect과 연관된다. 앞서 살폈듯이 정동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운동이자 끝없는 운동이다. 정동은 운동의 지속 안에서의 변화다. 영화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매체다. 영화는 분할된 동적인 단면(집합)이 이어지며 운동을 재생산하는 운동-이미지다. 그렇다면 빨랑은 무엇인가. 빨랑은 운동-이미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속으로서의 동적인 단면이다. 우선 빨랑(특정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이미지)은 자기 내부의 다양체(시점과 스케일, 인물들의 행동 등) 간의 운동을 포괄하는 집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의 전체에서 분할된 질적으로 상이한 단일체다. 만약 전체와 부분이 일치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중인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운동으로서의 ‘지속’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빨랑은 이 분할된 이질적인 단일체들의 운동을 하나의 지속으로 재통합하기도 한다. 빨랑은 영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적인 집합들과(예컨대 아주 짧은 plan에서 plan-sequence에 이르기까지) 접속되며 집합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집합들의 관계 그 자체인 전체 또는 지속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즉 닫힌 집합이었던 빨랑은 운동을 통해 전체 혹은 지속과 다시 결합되고, 거꾸로 지속 혹은 전체는 빨랑 간의 접속 운동에 자신을 열어놓은 채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빨랑은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한편 전체의 감정적/신체적 변용affectation 작용²⁰⁾과 관계한다. 빨랑이 전체에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을 만들어낸다. 빨랑은 한 집

합 안에서 혹은 여러 집합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보여주며 지속의 '변화의 상태를 표현' affection한다.²¹⁾ 때문에 관객 역시 영화 속에서 어떤 끝없이 이행 중인 정동과 그 정동 속에서 어떤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이 일어나는 변이를 느낀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의미론적 차원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우리는 영화가 편집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관계적 해석의 차원에서 봤을 때²²⁾ 편집은 하나의 이념이자 전체, 관념, 말하자면 지속하는 시간의 간접적인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 운동-이미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작이다. 편집된 이미지들은 간격 속에서 간접적 시간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어 존재하는데, 이때 각각의 기호는 또 다른 기호와의 관련 속에서, 즉 모든 기호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됨으로써 하나의 해석체로 변화하며 하나의 해석체는 또 다시 기호가 되어 서로의 관계에 의한 또 다른 해석체를 만들어낸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호는 관계 속에서 어떤 해석(재현적 의미)의 차원을 얻는다.²³⁾

따라서 들뢰즈의 빨랑에 대한 설명인 지속으로서의 운동(정동)과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은,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정동(지속으로서의 운동)의 체험적 성격과 그 정동의 변화의 상태인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이 만들어내는 체험적 성격을 설명하

20) 학계에서 affect(affectus)와 affection(affectio)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으나 기존의 affect와 affection에 대한 논의는 스피노자의 개념과 스피노자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을 둘러싼 이라는 점 정도를 밝힌다. affect에 관해 널리 쓰이는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에 따르면, affect는 누군가의 존재 능력의 연속적인 변이인데, 변이는 그 누군가에게 선행하는 관념에 의해 어떤 affection(affectio)을 발생시킨다(이에 대한 번역으로는 (신체적)변용, 감정, 정서 등이 있다). 이때 연속적인 변이로서의 affect는 affection에 의해 봉인 된다(질 들뢰즈 외,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옮김, 갈무리, 2014. 참조). 개념의 정의와 번역어의 혼동은 affection이 신체의 변용과 관련된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옮길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affect가 행위 역량의 증대나 감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감정 혹은 정서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진태원은 affect와 affection을 이 같은 용법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며, affect는 affection에 의해 '봉인' 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고 말한다.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2016 4월 참조). 본고에서는 affect를 연속적인 변이, 끝없이 이행하는 어떤 변화의 차원에서 운동-이미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정동'으로 규정한다. 이는 결국 코드화 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감각 인상의 강도强度적 체험이다. 한편 affection에 대한 번역어의 논란은 이 개념이 신체적 변용과 감정적 변화를 동시에 표현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affection을 감정적/신체적 변용으로 쓰겠다. 이때 그 변용은 관념으로만 표상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들의 변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속되는 affect의 표현이 된다.

21) 마찬가지로 변용은 정동의 상태를 나타낸다. 마수미가 밝힌 이미지의 감정적 특질 역시 주관적 의식이 정동에 대(의)해 만들어낸 하나의—육체가 의식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재등록된—'상태'다.

22) 운동-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대한 기호와 해석의 관련은 관계적 해석의 차원에서 종합된다. 이때 만들어진 총체성은 하나의 이념 내에서 무한히 열린 유기적 총체성이다.

23) 이지영, 「운동-이미지와 운동의 통일성」, 『철학사상』 3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7;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학사, 2009; 질 들뢰즈, 『시네마1 운동-이미지』, 유진상 옮김, 시각과 언어, 2002. 참조.

는데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87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서술된 『봄날』이 전통적인 서사처럼 서술을 통해 서사의 부분과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론적 총체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5.18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그려냄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는 의미론적인 서술마저 침식하게 한다면, 그 감각 인상적 이미지는 마치 지속으로서의 빨랑처럼 전체에서 정동과 감정적/신체적 변용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며 존재한다. 즉 지속으로서의 빨랑이 잠재적인 것에서 현재적인 것으로의 이행의 논리를 보여주며 독자의 정동과 감정적/신체적 변용을 만들어내듯이, 독자는 『봄날』의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서사에서 잠재적인 정동과 현재적인 차원인 감정적/신체적 변용의 차원을 체험하게 된다. 이때 『봄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적 서사의 효과라는 차원에서 브라이언 마수미의 이론이 다시 호명된다. 앞서 살핀 바 있듯이 마수미의 이론은 이미지 수용에 있어 정동의 차원이 의미화 질서와 감정적 차원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감산되는지를 알려줬다. 마찬가지로 기호의 차원에서 존재하며 끝없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관계는,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범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끝없이 제 정체를 바꿔가며 5.18에 대해 무한한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된다. 이로써 『봄날』은 5.18이라는 재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해석에 무한히 열어놓음으로써 5.18의 의미를 종결시키지 않는 재현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봄날』만의 것으로 보이는 체험의 차원이 사실은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이는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소설은 언제나 제 자신의 의미론적 구조 속으로 용해되지 않는 강도强度적 요소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도대체 누가 있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혹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표현되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다만 감각될 뿐이다. 이때의 감각은 몸으로 체감하는 정동의 차원에 있다는 점에서 감각기관의 감각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체험이다. 정동은, 혹은 몸은 소설 앞에서 자신의 바깥을 향해(어쩌면 내부를 향해) 열려 있고 어떤 무엇인가와 공명하며 어떤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 즉 소설은 자신의 경향성 속에서 언제나 (비)재현적 재현을 이미 하고 있다.²⁴⁾ 이렇게 보면 『봄날』의 특이점은 소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정동과 변용, 즉 체험적 요소를 앞서 언급한 제 형식을

24) 따라서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소설의 언어가 갖는 정동적 차원을 간과한 담론이다. 소설의 정동적 강도는 소설마다 달라도 소설은 이미 언제나 재현 이상의 것을 재현한다. 반면 우리가 어떤 재현의 형식이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이야기 할 때 이는 결국 어떤 역사적 조건 내에서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정동의 중요성 역시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강조될 것이다.

통해 극단적으로 밀고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봄날』은 소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험적 요소를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서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확장했다. 소설은 의미론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어떤 핵심 문장들에 의해 구조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적 표현을 통해 ‘체험’의 요소를 극대화하며 종결되지 않는 의미론적 질서를 산출할 수도 있다(시는 이미 대개 그렇게 존재한다). 우리는 『봄날』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때문에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만들어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8이라는 사건성을 해석에 끝없이 열어놓기. 사건의 성격을 체험하게 하기. 언어의 의미론적 요소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언어를 뛰어넘기. 언어를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재현에 관해, 혹은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곤 하는 거대한 사건을 비재현적인 방식으로 (비)재현하기.

본고는 지금까지 살핀 『봄날』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봄날』의 재현적 의미를 먼저 밝히고, 이 재현적 의미에 종속되지 않는 이미지적 서사의 체험적 성격을 드러낸 뒤,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재현적 의미의 불완전성과 종결 없는 생성을 살펴보겠다. 이는 결국 『봄날』의 형식이 갖는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1장에서는 『봄날』에 재현된 5.18의 의미를 밝힌다. 여기서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시민들의 저항성 그리고 5.18은 신군부의 권력 의지에 의해 공수부대와 광주 시민이라는 동족이 싸운 비극의 상잔임이 드러난다.

2장에서는 1장에서 밝힌 재현적 의미가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에 의해 어떻게 침식되는지, 그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낸 체험적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드러낼 것이다.

3장에서는 그럼에도 이미지적 서사가 어떻게 재현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재현적 의미의 불완전성, 재현적 의미의 종결 없는 생성을 보여주겠다. 이로써 『봄날』이 만들어내는 5.18의 재현적 의미는 무한에 가깝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결론은 『봄날』이 5월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II. 본론

제1장 『봄날』에 재현된 5.18의 의미

1) 신군부의 권력 의지와 광주

『봄날』은 5.18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시작점을 신군부의 불법적 쿠데타에서부터 찾는다. 그들은 정권을 무력으로 탈취하는데 성공했으나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군부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심각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국민들의 반감을 해소하고(억누르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 했다. 그래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대의 정치적 반발 예상 지역인 서울과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들은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다. 전국의 시위대는 진압되어 잠잠했으나 광주만은 달랐다. 이것이 『봄날』에 나타난 5.18의 문제적 배경이다. 신군부가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광주의 저항을 진압하며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귀관들.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건국 이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위급하고 절대절명의 난국은 일찍이 한번도 없었다. 귀관들도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작년 시월, 대통령 각하께서 불의의 총탄에 서거하신 엄청난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일거에 남침해 내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다.”²⁵⁾

“저들은 계엄령과 함께 정치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어. 그러나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제거해야 하는 일이 남았지. 최근의 학생 시위 열기가 당장 전국적인 시위 사태로 발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 필요했어. 동시에 자기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의 저항이라도 가차없이 분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해야 할 필요도 물론 있었겠지…… 어느 밀실에 모여 머리를 짠 결과, 마침내 그들은 그 일거양득의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낸 거야. 그게 뭘까. 바로 희생양이지!……”²⁶⁾

첫 번째 인용문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국가적 위기를 조작하여 전국에 광주 진압의 불가피성을 밝히는 정치 이념적 전략을 보여준다. 여기서 국가적 위기란 북한의 침입

25)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31~32쪽.

26) 임철우, 같은 책, 290쪽.

이다. ‘빨갱이’, ‘불순분자’, ‘간첩’은 이 땅의 만능키다. 분단전쟁을 거친 한국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이념적 정당성은 없다. 신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공포 정치다. 반공주의가 대한민국의 콤플렉스처럼 작동한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얻어낸 권력의 정당성이 완벽해질 수는 없다. 이념적 토대를 만들고 정적을 제거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국민들의 반발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5.18의 잔혹한 폭력성이 그래서 나타난다. 광주를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의 저항이라도 가차없이 분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광주는 본보기가 된 희생양이다. 그들은 광주의 시위를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폭력으로 진압하여 전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고자 한다. 자신들을 거역하게 될 경우 끔찍한 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신군부의 실제적 위협은 그들의 정당성을 강제로 강화한다. 그들의 물리적 폭력이 전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셈이다.

2) 공수부대의 폭력성

『봄날』에서 밝히는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의미론적 서술은 적다. 『봄날』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듯 폭력의 장면만을 계속해서 묘사한다. 소설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공수부대의 폭력 장면은 대개 이미지적 서사의 층위에 머문다. 그러나 『봄날』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자명한 폭력의 성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증오다. 증오는 공수부대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다. 『봄날』은 증오에 사로잡힌 인간이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맹렬한 충동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새끼들이 날 죽이려 했다. 내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화분을 던졌어. 이 개 자식들이!

분노가, 증오심이 그의 팔을 정신없이 휘두르게 만들었다.

이윽고 명치는 숨을 몰아쉬며 동작을 멈추었다. 발 앞에 축 늘어져 있는 두 개의 몸통이가 비로소 시야에 들어왔다. 미동도 없이 늘어진 둘. 그 중 하나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르르르, 기이하게 경련하고 있는 그들의 팔다리.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명치는 눈을 크게 떴다.²⁷⁾

여기서 명치는 시민군의 폭력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끌려 다니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는 일순간 자신을 잃어버린다. “분노가, 증오심이 그의 팔을 정신없이 휘두르게 만들었다.” ‘명치가’ 자신의 증오심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증오가’ 명치의 주인이 되어 무자비한 물리적 폭력을 명령한다. 증오는 자신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미동도 없이 늘어져 팔다리만이 기이하게 경련하는 몸뚱이로 환원될 때까지 자신을 표출한다. 증오와 결합된 분노는 다른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감정이다. 증오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정당함과 부당함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잔혹한 폭력을 발생 시킨다.²⁷⁾

이 외에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정의할 만한 의미론적 서술은 『봄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봄날5권』의 후반부에서 이야기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마치 수사처럼 스치듯 지나가고, 3절에서 밝혀질 ‘인간성’의 훼손이 갖는 의미는 ‘인간성’이라는 낱말 자체의 극도의 추상성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실 『봄날』이 공들여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증오심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봄날』은 타인을 절멸하게 만드는 공수부대의 폭력성의 연원을 상세하게 더듬는다. 『봄날』이 알려주는 진실은, 물론 역사적 진실이지만, 결국 신군부의 권력 의지에 있다. 핵심은 신군부가 쿠데타를 비판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소위 ‘충정훈련’을 강행했으며, 이 데모진압훈련이 유래 없이 지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병사들에게 타인을 섬멸할 만한 증오와 분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들에겐 그 무서운 불만과 증오와 적개심의 대상이 누구일 것인가라는 사실은 막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만 그것이 누구이든, 무엇이든간에, 자신들의 가슴속에서 비등하고 있는 그 엄청난 증오와 적의의 에너지를 당장이라도 배출해내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리라는 사실, 그것뿐이었다.

(……)

그 찌는 듯한 한낮의 땀방울을 맞으며 먼지와 최루탄 가스를 퍼마셔야 하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한바탕 매운 가스를 마시고 연병장을 뛰다 보면 숨이 킁킁 막혀오면서 살덩이와 내장까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고, 급기야는 강렬

27) 임철우, 같은 책, 154쪽.

28) 자크 아순, 『증오의 모호한 대상』, 김승철 옮김, 동문선, 2002. 참조.

한 증오와 분노로 염통이 평 소리를 내며 터져버리고 말 것 같았다.²⁹⁾

찌는 듯한 한낮의 땀별 속에서 먼지와 최루탄 가스를 퍼마시며 뛰어다녀야만 하는 훈련의 반복은 병사들을 끝없이 극한적 상황으로 몰아간다. 육체적 고통은 “살덩이와 내장”을 “지글지글 끓어오르게” 만들고 그로 인한 “강력한 증오와 분노”는 “염통이 평 소리를 내며 터져버리고 말 것”처럼 살인적이다. 그들을 미친 듯이 괴롭히는 존재는 자신의 상관이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상태를 아랑곳 하지 않고 가혹한 훈련을 계속 진행한다. 그런데 병사들의 분노와 증오는 자신들의 고통을 유발한 지휘관에게 향하지 않는다. 그들의 분노와 증오는 자기 내부에서만 터질 듯이 맴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를 억누르기만 하는가. 『봄날』은 그 원인을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이 갖는 계급적인 힘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 병사들이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고 지휘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대라는 강력한 체계에서 작동하는 계급과 힘의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병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선글라스’의 신비다.

검은색의 선글라스는 이상한 마력 같은 걸 지니고 있었다. 다만 두 눈을 가릴 뿐인데도, 일단 그걸 뒤집어쓰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인물의 특징과 감정, 표정까지도 놀랍도록 깡그리 지워버렸다……그것은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사라에게 까닭 모를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그걸 쓰고 있는 사람에게겐 어떤 비정하고 잔인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바로 그 신비한 마력 때문에 병사들은 그 선글라스들이 하달하는 명령에 때론 목숨까지 바쳐가며 완벽한 복종을 바치고, 그 혹독한 훈련과 생존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고통을 초인적인 충성심으로 감내하며 일사분란하게 한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³⁰⁾

『봄날』은 검은색의 선글라스가 왜 병사들에게 초인적인 충성심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봄날』은 검은색의 선글라스가 만들어내는 “신비”의 현상을 보여줄 뿐이다. 검은색의 선글라스는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선글라스는 두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 한 인물의 특징과 감정, 표정까지도 지워버린다. 심지어 지휘관의 두 눈이 선글라스로 덮이는 순간 병사들은 어떤 공포와 불안감에 빠져들고 지휘관은 어

29)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131~1332쪽.

30) 임철우, 같은 책, 125쪽.

면 비정하고 잔인한 힘과 용기를 갖는다. 눈을 가린다는 게 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매력은 병사들에게 “생존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며 목숨까지 바치는 완벽한 복종을 이끌어낸다. 어쨌든 선글라스는 지휘관과 병사들의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묶는 신비의 매개물이다.

그러나 『봄날』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의 신비를 비판적으로 규정한다. 사실 신비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인위적 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면’ 효과다. 실제로 공수부대원들은 공수부대의 최상층에 있는 여단장의 권위와 권능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었으며, 교화되어왔다. 병사들에게 여단장은 하나의 ‘신앙’으로 추앙된다. 그들은 강제된 형태지만, 스스로 여단장의 권위와 권능을 만들어내고 지탱하는 사도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 그 신앙의 충직한 신도임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병사들은 여단장이라는 상징적 인물에게 동일시함으로써 복종과 희생, 용맹과 정의, 조국과 집단에의 충성, 명예에의 헌신을 내면화한다. 그들은 여단장과 동일시 속에서 여단장으로 대표되는 공수부대의 명령체계에 절대 복종한다. 병사들은 그 강력하고 유혹적인 최면 상태에서 모두 ‘영웅’이 되고 ‘초인’이 되어 망상적 전능감을 느낀다.

최면에 의해 만들어진 공수부대의 전능감 역시 『봄날』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공수부대의 폭력의 원인 중 하나다. 그들은 타인을 완벽히 조종할 수 있는 자신들의 위력에서 이상화된 자기를 확인한다. 이상적 자기를 자기 뜻대로 확인할수록 전능감은 증폭된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희한한 위력에 감동했다.”³¹⁾ 특히 추상사는 자신의 전능감을 즐기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디즘적이다. 한 청년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폭력을 휘두르며 군중을 우롱하는 그는 수많은 시민이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시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전능감이 자신의 물리적 힘을 통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추상사는 또 건너편의 소리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퍽. 퍽. 퍽.”³²⁾ 이 순간 그는 전지전능함의 표상이다. 그러나 전능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 때문에 더 폭력적인 공격성을 낳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바로 그 높은 기준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그 불만이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군대의 체제가 만들어낸 전능감은 그들의 증오와 잔혹성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매개가 된다. “그 망가진 자존심과 우월감, 짜증과 불만을 보상받으려는 듯 병사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더 난폭해져가고, 피투성이로 변해 길바닥에 나뒹구는 시민들의 숫자는 더더욱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³³⁾

31) 임철우, 같은 책, 62쪽.

32) 임철우, 같은 책, 169쪽.

『봄날』에서 밝힌 공수부대의 폭력성의 연원은 계엄령에 의한 광주진압작전 그 자체에도 있다. 계엄령은 일종의 비상사태 속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원수가 내리는 초법적 긴급명령이다. 계엄령이 발효된 순간부터 현행법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타인의 모든 행위는 계엄령을 내린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합/불법의 연관을 갖게 된다. 계엄령은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 법의 바깥에서 법을 창출하는 동시에 법을 집행한다. 따라서 군 지휘부의 명령이나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의 행위는 공공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주권자의 의지 속에서 모두 용납된다.³⁴⁾

초전 박살. 다중에게 최대한의 공포심을 유발시켜라.

소규모로 편성한 다수 진압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 바둑판식 분할 점령하라.

대대 단위별로 기동 타격대를 보유,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하라.

군중 십 인 이상 집결할 시는 무조건 공격, 철저히 신속하게 궤멸하라.

타격은 과감하게 하라.

무자비하고 위압적인 위력을 적극적으로 시위하라……

시위 군중으로부터 최대한 공포 효과를 유발할 것.

군중 심리는 공포심을 느끼면 일순간에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고로, 타격은 과감하게 하고, 일단 체포한 범법자는 다중의 목격하에 무자비하게 응징, 시위해보여라……³⁵⁾

“초전박살”, “최대한의 공포심”, “신속하게 궤멸”, “타격은 과감하게” 같은 전시효과를 노린 무자비한 행동 지침과 그로 인한 극단적인 폭력은 계엄령 속에서 합법성을 갖는다. 주권자는 법의 소유자다. 법적인 죄지음은 신군부가 결정한다. 계엄령에 의해 시민들의 법적 인격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법적 인격의 상실은 인간의 다른 모든 권리를 조건 짓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시민권’을 무너트린다.³⁶⁾ 누구도 계엄사령부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무고한 폭력이 잔혹하게 펼쳐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수부대 병사 십여 명이 때마침 지나가던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더

33) 임철우, 같은 책, 146쪽.

34) 주권 권력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 향 옮김, 새물결, 2009. 참조.

35) 임철우, 같은 책, 51쪽.

36) 제도적 권리와 인간의 권리의 연관에 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난장, 2012, 138~140쪽;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선옥 옮김, 한길사, 2011, 233~239쪽. 참조.

니, 젊은 남자 대여섯 명을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들의 머리와 몸뚱이를 퍽 퍽퍽 내려치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의 행위는 계엄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시민들은 “‘소요 주모자’ ‘범법 행위자’”³⁷⁾다. 그들은 정의의 수호자다.

3) 시민/민중³⁸⁾의 저항성

시민들이 공수부대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폭력에 맞서 저항하게 된 계기 역시 여러 층위에서 서술된다. 먼저 수많은 시민들이 항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외적인 이유는 광주의 지리적 여건 때문이었다. 예컨대 금남로와 바로 곁의 충장로는 광주의 명실상부한 중심가다. 여기에는 최신 유행하는 의류, 가전제품, 일용 상품을 파는 상점이 밀집해 있고, 호텔, 극장, 식당, 서점, 사무실, 은행, 언론 기관 등이 한꺼번에 몰려 있으며 별의별 종류의 도매상과 유통업체도 밀집해 있다. 시민들은 사무를 보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이날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일대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었다. 전날과 이날 오전에 벌어진 공수부대의 무차별한 진압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분노와 호기심에 다시 집을 나선 사람들, 혹은 차마 믿어지지 않는 갖가지 끔찍한 소문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에 시내로 쏟아져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용무를 보기 위해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다.³⁹⁾

5월 19일 오후 2시 무렵, 금남로에는 사정을 모른 채 단순히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몰려 있었고,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온 사람, 공수부대의 폭력을 직접 목격하고 분노로 다시 나온 사람 등이 모여 있었다. 수천수만 명의 시민이 금남로에서 벌어진 공수부대의 잔혹한 폭력을 목격하며 거대한 항전이 시작된다. 항전의 시작에는 루머의 역할도 있다. 루머는 모호함과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37)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223쪽.

38) 『봄날』에서 5.18은 수십만의 사람이 참여한 사건이며,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인 시민과 민중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5.18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낱말일 뿐이다. 때문에 보고는 좀 더 일반적인 층위에서 사람들을 지시하는 ‘시민’을 사용하겠다.

39)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5~176쪽.

대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며 그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어떤 실재적 의미를 형성하고 증폭시킨다. 불확실한 상황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루머가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를 더 강화하기 때문이다.⁴⁰⁾

“조금 전에 사람들이 석유통을 가져와 불을 지르고 갔답니다. 경상도 번호판이 붙은 차요. 둘 다.”

“아니, 어째서요?”

“어째서라니! 지금 저 공수놈들이 모두 경상도 병력들이라지 않소. 일부러 그놈들만 뽑아서 내려보낸 전두환이놈들도 마찬가지고. 이 판에 우리 광주 사람들 씨를 아조 싸그리 말려버리라고 저 개새끼들한테 명령을 내렸답디다.”

(……)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엄청난 일들을 고스란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시민들로서는 뭔가 그럴 법한 이유만이라도 찾아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상식 밖의 그런 엉뚱한 소문조차도 오히려 그럴듯하게 여겨질 정도로,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차라리 악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⁴¹⁾

인용문은 광주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 경상도 병력이 투입됐다는 루머에 의한 시민들의 과격한 시위와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명기의 논평이다. 시민들은 루머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존재 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그 위험을 급박하고 두려운 것으로 느꼈으며 이에 대응했다. 여기서 그 일들을 실제로 겪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루머가 만들어내는 위험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 위험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는 식의 영원성을 갖는다.⁴²⁾ 게다가 그들은 이미 루머가 단순히 루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저 끔찍한 소문들이 진실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직접 보았다는 손님한테 들었어. 터미널 앞 지하도에 공수부대한테 무참히 살해된 시체가 둘 있는데, 칠십 살 묵은 노인하고 대학생이라여. 첨엔 나도 설마 했었는디, 차를 몰고 다니면서 벼라별 광경을

40) 니콜라스 디폰조 외, 『루머 심리학』, 신영환 옮김, 한국산업훈련연구소, 2008, 24~99쪽. 참조.

41) 임철우, 같은 책, 132쪽.

42)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 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옮김, 갈무리, 2015. 참조.

다 보고 나니까 이젠 뜬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구먼. 거기, 뒷자리 왼쪽 시트에 피 묻은 걸 봐.”⁴³⁾ 광주 시내에서 보고 겪은 일들은 루머의 실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루머가 만들어지는, 혹은 루머가 만들어내는 불안심리와 위협에 대한 공포심, 분노 등의 반응은 시민들에게서 점점 더 강한 강도를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후에 루머는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거나, 대검으로 여자의 유방을 도려냈다는 식의 충격적인 내용도 갖게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심리와 공격성은 증폭된다. 루머는 항쟁을 시작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공수부대에게 저항하는 시민들이 어느 순간 한데 모여 들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항전이 시작되는 요인이다. 시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엄청난 규모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분노와 모멸감, 폭행당하는 시민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한 복수에 의 소망 같은 것들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느낀다. 이는 시민들을 모두 숙연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든다. 『봄날』에서는 그 감동이 ‘불씨’로 ‘표현’된다. 시민들은 이때부터 ‘불씨’가 깨어난, 기존의 자기와는 다른 존재인 불의 인간이 되어 어떤 엄청난 힘을 내장한 채 항전에 참여한다. 그러나 불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봄날』에 서술된 ‘불씨’는 비유로 점철되어 있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불씨’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불씨’가 깨어난 시민은 애정과 슬픔, 형용하기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느끼며 이는 유년의 경험이나 고향, 어머니가 주는 어떤 느낌과 연결된다는 점 정도다. 사실 불씨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엄청난 공포와 슬픔, 그러나 차마 대적하기엔 너무나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상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있어야만 했던 간절한 분노와 복수에 의 소망—이젠 결코 몇 사람 소수의 것만은 아님을 확인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이 순간 그들 모두를 숙연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주 짧은 동안, 알 수 없는 침묵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소리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엄청난 힘을 아슬아슬하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불현 듯 저마다 이상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불씨.

43)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55쪽.

그것은 바로 불씨였다.……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훨씬 이전,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그 불씨가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마다의 유년의 기억이라든가 어머니 · 고향 따위의 이름을 떠올리곤 할 때면, 지금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희미한 불씨의 존재를 문득문득 기억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들이 불현 듯 형언하기 어려운 애정과 슬픔으로 다가왔다.……그들은 갑자기 서로에게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⁴⁴⁾

항쟁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불씨는 핵심적이다. 불씨는 시민들이 어떻게 공수부대의 광기 어린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왜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었는지, 뛰어난 지도자나 조직도 없고,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특별한 이데올로기도 없는 그런 항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신문기사 김상섭은 시민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신념이나 목적도 개입되지 않”은, “어떤 최소한의 조직도, 전략조차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난, 그야말로 비조직적이고 즉흥적이며 자발적인 항쟁”⁴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는 다만 “어떤 불덩이—그 뜨거운 감격의 불덩어리로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⁴⁶⁾이라고 논평한다. 이 같은 비유는 『봄날』에서 중심인물 격인 무석, 명기, 정신부, 윤상현에게서도 똑같이 공유된다. 무석은 시위 와중 알 수 없는 불덩어리로 가슴이 뻘뻘하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명기는 불씨가 시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한다. 정신부는 시민들의 투쟁 의지를 불꽃에 비유하고 시민들의 저항은 극한적 상황에서 충전된 정의로운 힘과 용기에 의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역시 항전을 가능케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사랑을 언급하며 이는 인간이 지닌, 인간을 향한 고귀하고도 지순한 그리움의 불꽃이라고 본다. ‘불’은 어떤 방식으로건 항쟁을 만들어낸 힘이다.

항쟁의 지속과 관련해서 『봄날』이 밝힌 동력은 가두방송을 하는 전옥주의 목소리에도

44)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8쪽.

45)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214쪽.

46) 임철우, 같은 책, 215쪽.

있었다. 김상섭은 전옥주의 가두방송이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시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 같은 차량 시위를 통해 고양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를 심리적으로 결집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애절하고 감동적인 호소임에 틀림없었다.”⁴⁷⁾ 『봄날』 43장에는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서술된 부분도 있다. 항쟁이 가장 격렬했던 5월 20일 저녁부터 21일 새벽까지의 끔찍한 어둠과, 그날 터진 MBC방송사·세무서 방화도 항쟁이 지속되었던 동력이다. 어둠은 시민들을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만들었고 “어둠은 때로 공포심을 현저하게 희석시키는 법이다. 적이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 군중은 무모하리만큼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이다.”⁴⁸⁾, 어둠 속에서 터진 거대한 불길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강한 의지를 만들어냈다. “숫구치는 불길을 보고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며 더욱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했다.”⁴⁹⁾

그렇다면 항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공수부대의 폭력이 파괴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항전했는가. 『봄날』에서 이를 서술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몇몇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인데, 그들에게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성’이다(그렇다면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폭력이기도 하다). 대학생인 명기는 공수부대의 폭력이 훼손된 것은 자유와 평화, 진실과 평등을 향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에 그는 이런 추상적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라고 생각한다. 무석이나 그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미순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의 발언은 인간이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러 수는 없다고 요약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한 폭력은 인간이라면 겪지 않아야 할 폭력이다.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해 인간 이하로 추락했다. 때문에 인간성의 회복이야말로 항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목적이라는 게 있다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광주가 일시적으로 해방을 맞았을 때 윤상현이 떠올린 페다고지의 한 구절은 이를 정확히 지시한다. 그런데 『봄날』에서 ‘인간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은 없다. ‘인간성’은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폭력에 맞선 피압박자들의 항쟁은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려는 염원으로부터 비롯되며 [……] 인간답게 되고자 투쟁하는 피압박자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짓누르는 억압자들과의 싸움으로부터, 그들이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⁵⁰⁾

47)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232쪽.

48) 임철우, 같은 책, 207~208쪽.

49) 임철우, 같은 책, 321쪽.

해방 광주의 저항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이전의 저항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의 저항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된다. 이는 항쟁파와 투항파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항쟁파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항파는 신군부와 협상을 통해 그들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그룹의 갈등은 도청 최후의 날까지 지속된다. 『봄날』은 이 같은 상황을 김상섭의 논평을 통해 현상적 차원에서 정리한다. 김상섭은 투항파나 항쟁파의 입장 중 어떤 입장도 옳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올바른 게 있다면 둘 모두가 그렇다고 판단한다. 둘 모두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수많은 억울한 죽음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목표를 위해 똑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딜레마”⁵¹⁾의 상황이다. 해방 광주는 어떤 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딜레마 속에 있었다. 여기까지가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봄날』의 재현적 층위다.

뒤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재현적 의미가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다.

4)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상잔의 비극과 극복

우리는 지금까지 5.18이 발생했던 역사적 배경과 공수부대의 폭력,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데 『봄날』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론적 도식 하나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선명하다. 『봄날』에 의하면 5.18은 신군부의 권력 의지에 휘말린 하나의 민족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이, 서로 대립되는 진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와 원한 속에서 파괴하며 대립하게 만든 상잔이다.

‘……파지고 보면, 저 병사들 역시 또 다른 의미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아 니, 그럴 것이다. 제 부모, 제 형제, 제 친구들의 가슴에 총구를 겨냥해야만 하는 저들에겐 실상 선택권이 없을 터이므로…… 진짜 범죄자들은 오히려 저 얼룩 무늬 병사들의 등뒤에 있는 자들이다. 그놈들이야말로 이 엄청난 사람 사냥을 음모 했고, 저 병사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진정한 살

50)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249쪽.

51)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247쪽.

인자의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 싸움은 바로 그자들과의 싸움이어야 한다.⁵²⁾

소탕 작전이 개시되기만 해봐라. 이번에는야말로 나가기만 하면 싹쓸이를 해버릴 테다. 원수를 갚아야 할 게 아닌가. 벌써 아군 쪽에서 살상자가 상당수 생긴 판인데, 보복을 해야 한다…… 그렇듯 별의별 살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판이다.
 (……)

지금 이 순간, 저 눈앞의 도시 전체와 팔십만의 시민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그들 모두가 그 거대한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였다. 그들 모두는 서로가 똑같이 포획당한 물고기일 뿐, 결코 적도 원수도 아니었다. 적은 정작 다른 곳에 있을 터였다. 병사들을 일순간에 맹목적인 증오와 폭력과 광기의 노리개로 만들어서 동족을 처참하게 살육하도록 만들고, 마침내는 형제와 친구끼리 서로 총구를 맞대도록 만들고 있는 자들. 저 거대한 그물을 한 손에 쥔 채 제멋대로 뒤흔들고 있는 자들. 이 추악한 범죄를 처음부터 음모하고, 조종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었다, 적은.⁵³⁾

핵심은 간명하다. 희생자는 시민뿐만이 아니다. 병사들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희생자다. 동족과 친구에게 총을 겨누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군인이었다. 따라서 적은 공수부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다. 진짜 적은 배후에 있다. “그놈들이야말로 이 엄청난 사람 사냥을 음모 했고, 저 병사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진정한 살인자의 집단”이다. 그들 때문에 병사들은 맹목적인 증오와 폭력과 광기의 노리개가 되어야만 했다. 애시 당초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폭압적 권력 의지가 아니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봄날』은 이 같이 비극이 5.18만의 것은 아님을 밝힌다. 5.18은 그 전에 있었던 역사적 비극의 반복이었다. 거대한 외부적 힘의 침입과 그에 휘둘린 사람들 간의 증오와 폭력이라는 비극은 낙일도 사람들이 겪은 6.25와 1977년 간첩조작사건의 비극과 유사하다. 낙일도의 마을 공동체 일원은 저 두 거대한 사건 속에서, 개인적인 잘못과 원한까지 겹쳐 서로를 증오하며 파괴했다. 증오와 복수의 폭력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찢

52)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9쪽.

53)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173~178쪽.

어났으며 그로 인한 복수심과 원한은 누대를 걸쳐 이어진다.

수희를 울게 만든 건 정작 예의 그 알 수 없는 적의와 분노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당사자들인 그녀들에겐 아무런 선택권도 거부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타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버리는 그 얼토당토않은 운명의 부당성과 횡포에 대한 적의와 분노 말이다.

(……)

그건 외가 식구들 거의 전부였다. 그들 모두가 일가족 고정간첩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달고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것이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외할머니 그리고 외숙모까지도……54)

어쩌면 최판돌 순경이야말로 낙일도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전쟁의 피해자일 거였다. 그들 일가는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었다. 후퇴하는 육지의 경찰 병력에 합류하여 최순경이 섬 남쪽의 청산도로 떠난 사이, 낙일도에 남겨진 그의 노부모와 형제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이유라면 단 한 가지. 바로 최판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당시 읍내에서 일어났던, 경찰의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앞장을 섰다고 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끔찍한 복수극은 벌어졌고, 시신들은 다시 한밤중에 먼 바다에 내다버려졌다는 소문이었다. 물론 그 무렵 복수극의 주역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한 달 후 경찰 병력이 재차 낙일도를 탈환하고 나자 이번엔 거꾸로 자신들이 자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당하는 운명을 겪어야만 했었다.55)

동쪽끼리 총을 겨누고, 형제의 피로 손을 적시는 그런 참혹하고 부도덕한 역사는 결코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거였다. 삼십 년 전의 그 전쟁은 차라리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라는 망령이라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관절 누구인가. 제 나라 군대로 하여금 맨주먹뿐인 시민들을 학살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다 같은 젊은이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이렇듯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

54) 임철우, 같은 책, 53~67쪽.

55) 임철우, 같은 책, 84~88쪽.

도록 만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56)

첫 번째 인용문은 외부의 거대한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간첩조작사건에 의해 일가족이 풍비박살이 난 수희의 상황을 보여준다. 수희는 그 누구에게 쏟아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증오와 분노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두 번째 인용문 역시 외부의 거대한 권력 의지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여준다. 6.25 전쟁은 낙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논리를 갖게 했으며, 당시 각기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논리 속에서 서로를 적대하고 살해했다. 이는 5.18의 상황과 완벽히 일치한다. 세 번째 인용문은 6.25와 5.18을 겪은 한원구를 통해서 이를 적시한다. 그는 6.25나 5.18 모두 “동쪽끼리 총을 겨누고, 형제의 피로 손을 적시는 그런 참혹하고 부도덕한 역사”로 판단한다. 그는 5.18을 만들어낸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자문하며 6.25와 5.18 같은 역사적 사건이 어떤 거대한 권력 의지에 휘말린 사람들의 비극임을 환기한다. 즉 『봄날』은 6.25나 1977년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5.18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갖는 구조적 상동성을 지적하며 5.18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된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5.18은 저 거대한 권력 의지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6.25전쟁과 1977년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 거대한 권력 의지 자체에 대해 생각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채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시키는 데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들에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일종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5.18은 다르다. 5.18은 단순히 공수부대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시민들의 항전은 공수부대를 넘어 신군부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5.18은 거대한 권력 의지에 휘말린 동족·이웃·가족 간의 증오와 원한 그리고 복수의 연쇄라는 사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을 넘어서고자 한 사건이다. 세 번째 인용문과 네 번째 인용문은 이미 5.18에 참여한 자들의 인식이 ‘배후의 적’에까지 이르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봄날』의 중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윤상현의 목소리는 이를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 “……진짜 범죄자들은 오히려 저 얼룩무늬 병사들의 등뒤에 있는 자들이다. 그놈들이야말로 이 엄청난 사람 사냥을 음모 했고, 저 병사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진정한 살인자의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 싸움은 바로 그자들과의 싸움이야 한다……”57)

『봄날』에서 파악한 이 같은 의미론적 도식은 본고만의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도 『봄날』이 역사와 이념이 만들어낸 폭력에 희생당하는 존재를 그리고 있다고 본다. 가령

56) 임철우, 같은 책, 315쪽.

57)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9쪽.

정호웅은 『봄날』이 6.25 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실은 거대한 외부 폭력의 피해자 이듯이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부의 적에 놀아난 피해자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⁵⁸⁾

한데 상잔의 비극이 증오와 원한(이 둘은 결국 같은 것이다)에 의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증오는 어떻게 극복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앞서 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절멸이 이를 때까지 제 파괴적 속성을 멈추지 않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해체하는 감정임을 보았다. 다음의 인용문은 증오의 감정만이 남은 자의 허망함을 보여준다.

“이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갑자기 심한 허탈감이 전신을 엄습해왔다. 자신의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두운 과거의 굴레. 귀단과 무석, 명치 그리고 조양재 노인인 교도소에 아직 남아 있을 조씨의 가족들…… 그 모두가 질기고 완강한 그물처럼 그를 겹겹이 포위한 채 까마득한 물 밑바닥으로 그의 몸뚱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들은 거대한 그물코 하나하나에 저마다 무거운 납덩이로 매달려 있었고, 그것들과 함께 그는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거였다.⁵⁹⁾

한원구는 증오하는 자다. 그는 6.25과 1977년 간첩조작사건을 겪으며 어떤 원한과 복수심 속에서 살아간다. 상잔의 비극이 만들어낸 원한 관계는 한 개인의 삶을 증오로 점철되게 만든다(물론 이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증오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으며 고립된다. 그는 증오 때문에 증오하고 증오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을 더 증오한다. 그의 종착점은 결국 모든 관계의 말소다. ““이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갑자기 심한 허탈감이 전신을 엄습해왔다.” 인간의 삶의 의미가 결국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무는 증오하는 자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렇다면 상잔의 비극이 낳은 문제는 증오의 인간이 어떻게 증오에서 벗어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증오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원구는 눈앞이 아득해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다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내 자식들 세대까지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이 전신을 폭포처럼 짓누르기 시작했다.

58) 정호웅, 같은 책, 315쪽.

59)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1쪽.

(……)

‘……이보게 원구. 전쟁을 모르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세대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사슬을 또다시 떠맡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원구는 삼 년 전 어느 날 밤 낙일도에서 천진수가 했던 말을 불현 듯 떠올렸다.

(……)

그 무서운 증오의 씨앗을 안겨준 것은 전쟁이었지만, 그 증오의 덩어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일은 오직 그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⁶⁰⁾

한원구가 자신의 증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아들인 무석과 명치가 시민군과 공수부대원으로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다. 즉 5.18은 거대한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가족상잔, 동족상잔인데 이는 삼십년 전 낙일도에서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제 가족과 같은 이들을 서로 살해하는 비극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는 같은 비극이 자신의 자식 세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에 극심한 충격을 받는다. 이 충격은 5.18과 자신이 겪은 낙일도의 비극이 거대한 역사적 힘 앞에 휘둘린 개개인의 불행임을 깨닫게 하고, 한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힘 앞에 개개인의 삶과 운명은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의 증오는 이 같은 깨달음을 통해 극복된다.

이것이 『봄날』에 서술된 5.18의 재현적 의미다. 우리는 이제 『봄날』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재현적 의미에 종속되지 않는 이미지적 서사의 체험적 성격을 밝힐 것이다.

제2장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과 체험적 성격

본고는 앞서 『봄날』에 재현된 5.18의 의미를 살폈다. 이는 『봄날』에서 보여주는 공수부대의 폭력이나 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서술에 의해 만들어낸 의미다. 곧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 개입한 서술의 차원과 초점화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판단한 의미들이 모여서 5.18에 대한 의미론적 차원을 형성했다. 한데 서론에서 말했듯이 『봄날』은 의미론적인 기능을 하는 서술보다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묘사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 『봄날』은 감각 인상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독

60)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314~316쪽.

자에게 어떤 감각(정동)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더 집중한다. 심지어 장면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이미지적 묘사는 저 위에서 살핀 의미론적 차원마저 침범하며 존재한다. 『봄날』은 전통적인 서사처럼 서술을 통해 서사의 부분과 전체를 일치시켜 어떤 뚜렷한 의미론적 차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봄날』은 감각 인상적인 장면들을 통해 현실을 체험적으로 전달하려는 소설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려면 『봄날』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흐름을 다 살펴야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미지적 서사가 재현적 의미를 어떻게 침범하는지 밝히고 이미지적 서사가 체험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재현적 의미를 침범하는 이미지적 서사

우리는 서론에서 『봄날』의 이러한 특징을 이미지적 서사라고 정리하며 『봄날』의 서사가 마치 운동-이미지의 빨랑처럼 질적으로 운동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간략히 말해 여러 다양체를 거느린 하나의 빨랑인 장은, 혹은 장들 간의 간격은 끊임없는 질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하고 결국 ‘전체’를 무한히 변화시키며 독자의 정동을 증폭시킨다. 의미론적 차원은 『봄날』의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정동의 차원을 포획하고 고정시킴으로써 독자의 정동과 감정적 상태를 정리하고 육체적 동요를 가라앉히는 법이다. 예컨대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제도에 연원을 둔 증오의 폭력임을 증명했던 인용문을 다시 보자.

분노가, 증오심이 그의 팔을 정신없이 휘두르게 만들었다.

이윽고 명치는 숨을 몰아쉬며 동작을 멈추었다. 발 앞에 축 늘어져 있는 두 개의 몸뚱이가 비로소 시야에 들어왔다. 미동도 없이 늘어진 둘, 그 중 하나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르르르, 기이하게 경련하고 있는 그들의 팔 다리.⁶¹⁾

앞서 이 인용문은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구타가 분명 증오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며 우리에게 공수부대의 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차원을 전달해준다고 파악되었다. 의미론적인 서술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묘사도 제 이미지적 성격이 만들어낸 효과를

61)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54쪽.

계속 주장할 수 없다.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적인 장면들의 정동적 동요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정돈된다. 한데 이 인용문에 뒤이은 문장들의 행렬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증오의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붙잡혀온 사람들에게겐 또 한차례 지독한 몽둥이질과 발길질이 무차별로 퍼부어지는 게 순서다. 이미 녹초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다음엔 무조건 옷을 벗기고 팬티 한 장만 입게 한다. 그리고는 두 손목을 뒤로 돌려 각자 풀어낸 허리띠로 결박한 다음, 트럭 옆으로 끌고 간다. 거기서 한꺼번에 이삼십여 명씩 집합시킨 뒤, 본격적인 구타와 기합이 퍼부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사람의 목에 두 발을 걸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삼백육십 도로 한 번 굴러. 두 번 굴러……”

벌거숭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이 구령을 붙이고 있었다. 두 손을 등뒤로 묶인 채 아스팔트 바닥에 한사코 머리를 거꾸로 박으려고 버둥거리는 벌거숭이들. 그러다가 고꾸라지는 살덩이들을 병사는 군홧발로 짓이기며 욕을 퍼부어댄다. 서로의 목에 다리와 다리를 걸고 이리저리 길바닥을 굴러다니는 살덩어리들. 그것은 마치 꼬챙이에 줄줄이 꿰어진 채 불 위에서 빙글빙글 구워지고 있는 통닭 같기도 하고, 맹렬히 꿈틀거리는 한 무리의 벌레들 같기도 했다.⁶²⁾

간단히 말해 팬티 한 장만 입혀 놓고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게 하는 폭력, 인간을 맹렬히 꿈틀거리는 벌레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을 증오의 폭력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나,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사회적 의미망 자체를 탈구시켜버리는 폭력 혹은 또 다른 무엇이라고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럴 수 있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그 서사가 만들어내는 장면에 대한 해석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묘사되지만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재현적 의미를 비완결시킨 채 다른 재현적 의미를 무한히 생성한다. 어떤 재현적 의미도 이미지적 서사에 대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한다. 3장에서 상술할 테지만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제 자신의 상징적 성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은 우선 체험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아래에 이어질 어떤 감정적 차원의 분석들은 감정적/신체적

62) 임철우, 같은 책, 155~156쪽.

변용affection이 정동affect의 변화의 상태라는 점에서, 모두 이미지적 서사의 정동적 차원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표현이다.

인용문에 나타난 이미지적 장면은 과도한 묘사로 인해 순전히 어떤 경악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 같다. 문장이 쌓일수록 공수부대의 폭력은 기괴하고 터무니없으며 잔혹하다는 느낌을 불러낸다. 공수부대는 이미 극심한 구타를 당하고 온 사람을 다시 무차별로 구타하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팬티 한 장만을 입혀 또 다시 기합을 주는데,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강압적인 명령 속에서 “한사코 머리를 거꾸로 박으려고 버둥거”린다. 이 같은 풍경에 대한 비유는 더 끔찍하고 괴상한 느낌을 만들어내야겠다는 듯 극히 참혹하다. 인간은 줄줄이 꺾어져 불 위에서 빙글거리며 구워지는 통닭으로 표현되거나 맹렬히 꿈틀거리는 벌레들로 표현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자는 어떤 비참함과 참담함, 혹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모든 이미지적 서사는 어떠한 의미론적인 서술 없이 계속해서 나열되기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강도적 효과를 갈무리하거나 정돈할 틈을 주지 않는다. 정동은 끊임없이 새롭게 쏟아지는 감각적 자극 속에서 하염없이 증폭된다.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1장에서는 항전이 시작되고 진행된 요인으로 광주의 지리적 요건과 루머, 불씨, 전옥주의 가두방송, 어둠과 불 등을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봄날』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저항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아주 간단히 말해 시민들의 저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항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물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무력 집단인 공수부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타인과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누구도 강요도 없이 스스로 나설 수 있었는지, 그런 항쟁이, 항쟁 공동체가, 평범한 시민들의 저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힌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단연코 불가능에 가깝다. 지리적 요건, 루머, 가두방송, 어둠과 불 등의 온갖 요인으로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봄날』은 ‘불씨’를 말한다. 항쟁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결정적인 요인에 ‘불씨’라는 비유적 표현이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데 불씨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주 짧은 동안, 알 수 없는 침묵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소리 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엄청난 힘을 아슬아슬하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불현 듯 저마다 이상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불씨.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슬픔이나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하고, 혹은 뜨거운 분노 같기도 했다. 아니, 그 전부이거나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훨씬 이전,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그 불씨가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마다의 유년의 기억이라든가 어머니·고향 따위의 이름을 떠올리곤 할 때면, 지금껏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희미한 불씨의 존재를 문득문득 기억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광주 사람이라는 것, 오직 맨주먹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함께 몸을 맞대고 서 있다는 것—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갑자기 서로에게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⁶³⁾

불씨는 분명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불씨가 깨어난 인간은 어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며, 이 불씨는 유년의 기억, 어머니, 고향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불씨가 깨어난 시민은 다른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슬픔이나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하고, 혹은 뜨거운 분노 같기도 했다. 아니, 그 전부이거나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씨가 무엇인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한 이후에는 의미론적 서술 없는 이미지적 서사가 범람한다.

거대한 조수의 흐름. 사방의 수로에서 밀어닥치는 물살들은 지금 좁은 수문을 향해 거센 소용돌이를 이루며 무서운 힘으로 솟구쳐흐르고 있다. 수문은 오직 하나. 계엄군은 그 수문을 안간힘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물살은 갈수록 불어나고 수위는 더더욱 격렬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수문은 곧 함몰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실새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페퍼 포그와 최루탄의 소나기. 끝도 없이 이

63)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8쪽.

어지는 폭음, 폭음……

투투투투투.

퍼평. 퍼퍼퍼퍼—엥.

십시간에 자욱한 분말이 거대한 폭포의 포말처럼 땅과 하늘을 하얗게 뒤덮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감싸안고 비틀거린다.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여기저기서 폭석폭석 쓰러진다. 길바닥을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 도망도 치지 못한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통곡하는 여자들.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다. 방향도 물체도 분간할 겨를이 없다. 헉헉, 헉헉.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더 많은 분말들이 입으로 코로 폭폭 쏟아져들어온다. 도망칠 출구도, 숨을 자리도 없다. 어디나 온통 유독한 가스와 분말로 가득 차 있을 뿐.

그 틈을 타서 방독면을 쓴 외계인들의 무리가 빠른 속도로 급습해내려온다. 백여 미터쯤 전진했다가 그들은 다시 서둘러 복귀하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수십 명씩 붙잡혀 끌려갔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중학생도 섞여 있다. 끌려간 사람들은 공수부대 후미의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끔찍한 구타를 당한다. 그 광경을 먼발치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운 비명만 질러댄다.

그러나 시민들은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다.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안개가 조금 뜸해지면, 사람들은 이내 차도로 재빠르게 몰려 나온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고통스레 감싸쥐면서도 그들은 악착같이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다.⁶⁴⁾

이 장면은 공수부대의 극악한 폭력진압과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공수부대와 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봄날』의 의미론적 도식대로라면 이는 ‘불씨’다. 이 장면은 ‘불씨’가 만들어낸 시민들의 기적 같은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지적 서사가 수락하는 재현적 의미는 그뿐만이 아니다. 3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용기(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의 어떤 굳센 의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부가 이야기한 극한적 상황에서 피어난 용기라는 직관적 판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융합적 공동체,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 공수부대라는 동족과의 상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미지적 서사는 제 이미지적 성격 때문에 여러 해

64)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89~190쪽.

석을 고스란히 수락한다. 이 장면 하나가 갖는 재현적 의미는 일일이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질 수 있다. 이는 재현적 의미의 증식, 재현적 의미의 종결 불가능한 생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적 서사가 갖고 있는 재현적 의미의 완성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지적 서사는 애초에 어떤 의미론적 차원을 완료시키지 않는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 인상적 체험이다.

저 장면에게 느껴지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과 의지 또는 물러서지 않는 힘 같은 것이다. 먼저 공수부대의 진압 장면은 최루탄과 페퍼 포그가 터지는 장면을 “투투투투투”나 “퍼퍼퍼퍼—엥” 같은 연속되는 파열음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어떤 숨 가쁜 느낌을 만들어내고, “폭석폭석” 쓰러지는 시민, “허둥지둥” 도망치는 시민, “엥금엥금” 기어가는 시민, “부둥켜안고 영영 통곡하는” 여자들 같은 묘사는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분말에 갇힌 시민들의 상태를 더 실감나게 표현하며 독자에게 어떤 위험과 다급함, 어찌할 수 없는 압박이나 처절함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장면이 지나고 나면 공수부대의 급습이 묘사된다.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수십 명씩 붙잡아가 잔인하게 구타한다. 여기서 시민들의 무력함과 공수부대의 압도적인 힘이 자연스레 비교된다. 독자가 그 비교의 정도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어지는 문단에서 그려지는 시민들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의 강도는 더 강하게 된다. 시민들의 저항은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안개가 조금 뜸해지면, 사람들은 이내 차도로 재빠르게 몰려 나온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고통스레 감싸쥐면서도 그들은 악착같이 되돌아오곤” 한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들의 악착스러운 의지, 고통을 넘어선 집념, 뭔가를 초월해버린 것만 같은 힘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이처럼 『봄날』의 서사는 문장 하나하나의 수준에서도 온갖 비유와 형용사, 부사의 쓰임을 통해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짧은 서사의 배치의 차원에서도 독자의 정동적 동요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봄날』의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미지적 장면들 역시 이와 방불한 감각 인상적 묘사로 점철되어 있다. 의미론적인 층위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각 인상은 다른 감각 인상이 만들어내는 느낌과 공명하며 정동을 끝없이 증폭시킨다. 독자는 『봄날』의 지속적인 감각적 자극의 운동 속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한다. 이는 『봄날』이 체험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체험적 성격을 보여주는 특별한 방식이 두 가지 더 있다.

2) 장후내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봄날』이 이미지적 서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특별한 방식 중 하나는 장 속에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를 만들어 이를 의미론적 서술 없이 충돌시키는 것이다. 『봄날』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묘사가 도드라지는 이미지적 서사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펼치는데, 『봄날』의 몇몇 장은 이러한 이미지적 서사가 진행되어 만들어낸 어떤 흐름의 연속을 급작스럽고 커다랗게 뒤틀어 버린다. 다음은 16장의 일부다.

“저 새끼들도 잡았!”

하나가 소리치자 얼룩무늬 몇이 그 건물 계단으로 뛰어들어간다. 또 다른 건물의 일층 가게 셔터를 마구 걷어차고 있는 병사. 아악. 골목길에서 끌려나오는 청년들의 외마디 비명 소리. 펑펑. 미친 듯 휘둘러대는 둔탁한 진압봉들. 우두두두두. 사냥감을 쫓아 달리는 어지러운 군화발 소리. 여기저기 쓰러져 뒹구는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 멀찍이 떨어진 골목이며 주변의 건물 위층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터뜨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 그 모두가 불과 사오 분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무석은 창가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새파랗게 질린 미순은 어느 틈에 무석의 허리를 꼬옥 끌어안은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한다.

“아이고메. 어찌까이. 어째야 쓸거나아!”

주인여자가 탁자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셔터 내려! 빨리!”

주인사내가 다급하게 고함을 치자 종업원 아이가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이내 웬 청년 두 명과 종업원 아이의 몸뚱이가 현덩어리로 영키듯 식당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사, 살려주시오. 문. 어디, 문 없소?”

청년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출입문이 와지끈 젓혀지며 두 명의 얼룩무늬가 불쑥 나타났따.

“이 개새끼들, 어디 갔어!”

하나가 깝 소리를 지르며 다짜고짜 의자를 걸어찬다.

“아, 아이고 군인 아저씨들. 왜들 이, 이러십니까.”

영거주춤 다가가려는 주인사내의 복부로 군홧발이 날아갔고, 사내가 의자를 꺼안은 채 뒤로 나동그라졌다.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뛰어갔다. 얼룩무늬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내 악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 끌려나온 청년들.⁶⁵⁾

이 인용문은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 무석과 미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 장면이다. 앞서 다른 다른 공수부대의 폭력의 장면 들처럼 여기서도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설명 없이 묘사만 쏟아진다.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문단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장소가 달라지고 각각의 행위가 달라져서 독자에게 뭔가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가게 셔터가 “마구 걷어차”이고, 진압봉을 “미친 듯 휘둘러”대는 공수부대의 모습이나 “우두두두두”, “퍽퍽” 같은 낱말은 공수부대의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와중 셔터를 내리라는 주인내외의 음성과 뛰어간 종업원, 그 종업원과 한 덩이가 되어 몰려든 두 청년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독자에게 어떤 다급함과 긴급한 느낌을 자아내고, 순간 출입문이 “와지끈 젓혀지며” “불쑥” 나타난 공수부대가 주인사내를 걷어차 나동그라지게 만들고 기어이 청년들을 끌어내는 모습은 중국집 안에 있는 초점화자에 의해 시선이 잡힌 독자의 안/밖에 대한 심리적 경계를 무너트리며 어떤 위급한 느낌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낸다. 이제 미친 공수부대의 폭력은 창밖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 옆의 사태가 되는 것이다. 한데 16장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시민들을 보여주는 서사의 흐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튀어나오는 환호성과 충돌한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와아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안타아. 안탑니다. 역저언. 통쾌한 역전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회심의 안타가 팔회말 투아웃에 터져나왔습니다아……”

냉장고 위에 텔레비전이 그대로 켜져 있었던 것이다. 화면 속에선 열광하는 서울의 관중들이 깃발과 꽃술을 흔들며 미친 듯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다.⁶⁶⁾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TV에서 터져 나오는 열광의 환호성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 TV는 우리를 동시간대의 사람으로 묶어주지만 바로 그 TV라

65)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12~313쪽.

66) 임철우, 같은 책, 316쪽.

는 매체의 특징 때문에 “통쾌한 역전타”, “깃발과 꽃술을 흔들며 미친 듯 환호성을”
 절러대는 화면 속의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더 이질적으로, 광주의 상황을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같은 나라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광주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마치
 광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광적으로 표출하는 환호성은 독자를 어
 떤 아이러니함이나 당혹스러운 느낌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16장은 완전히 대립되
 는 이미지적 서사를 그린다는 점에서 정동을 크게 증폭시킨다. 감각 인상적 내용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각기 다른 느낌의 충돌은 그 충돌이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결국 두 감각 인상의 차원을 강하게 공명하게 하고 이는 정동 자체를
 더 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54장은 한 번 더 언급될 만하다. 여기에는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그려져 있다.

별안간 어디선가 「애국가」의 선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가사 없는 곡조
 .……느닷없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금남로를 메운 시민들은 어리둥절해져서
 한순간 멍하니 서 있다. 더러는 뒤늦게 「애국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무구옹화 사암천리 화려가양산……

바로 그 순간. 공수부대 병사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어댔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수백 개의 총구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총성. 총성. 총성. 허공을 갈
 기갈기 찢어발기며 울리는 총성. 건물이 우렁우렁 울리고, 가로수의 잎파리들이
 우두두두 떨어진다. 빌딩 벽을 맞고 핏팅 튀겨나오는 총탄들. 관광호텔과 전일빌
 딩에서 짹그랑 짹그랑, 유리창이 깨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포를 쏘고 있는
 듯하다.

(……)

마침내 시민들을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우와와와. 숨넘어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시민들. 사방에서 풀썩풀썩 쓰
 러진다. 파팍. 파파파팍.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총탄, 총탄, 총탄. 순식간에
 수십 명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여기저기 피투성이로 풀썩풀썩 나뒹구는 몸뚱
 이들. 몸뚱이들…… 거리는 어느 틈에 텅 비어 버렸다. 으아아아앗. 엄마야아앗.

아우성을 치며 시민들은 골목과 골목, 건물 벽이나 현관으로 몸을 숨긴다. 한국 은행 앞까지의 텅 빈 길바닥엔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삼사십 명의 시민들……

(……)

……바로 그 순간 대열의 훨씬 앞쪽, 텅 빈 차도 안으로 태극기를 든 청년 대 여섯 명이 돌연 튀어나갔다. 청년들은 차도 한가운데 멈춰선다. 공수부대 쪽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순간 ‘앞아 썩’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 저격수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

이내 또 다른 청년들 네댓 명이 차도로 뛰어나갔다. 길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태극기를 집어들고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타타타타탕. 다시 금 총성이 터지고, 청년들은 짙단처럼 맥없이 푹푹 고꾸라졌다.

(……)

‘봉축—부처님 오신 날.’

일제히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병사들의 등뒤로, 그렇게 적힌 대형 아치가 세워져 있었다.⁶⁷⁾

애국가 이후, 총알이 쏟아지는 장면은 어떤 강한 힘이 몰아닥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총구에서 총성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토해내”고 허공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면, 유성여와 의성어로 이루어진 묘사들이 마치 사물의 형태가 낱말대로 존재하기라도 하는 양 울림소리를 만들어내며 뒤를 잇는다. 총성은 건물들이 “우렁우렁” 울리게 하고 가로수의 이파리들이 “우두두두” 떨어지게 하며 무수히 쏟아지는 총알의 다발은 건물 벽에 맞고 “핑핑” 튕겨져 나가거나 애꿎은 유리창을 “쨍그랑 쨍그랑” 깨기도 한다. 짧은 문장 속에서 나열되는 비슷한 자음과 모음의 결합의 반복은 독자에게 어떤 공포스러운 리듬감마저 안겨주며 사물들의 형상이 어떤 힘에 의해 급하게 변화되는 감각 인상을 갖게 한다.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나뒹구는 뒤이은 장면은 어떤 긴급함과 처참함을 보여주는 단문들이 연속하거나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듯 쓰인 말줄임표에 의해 어떤 비극적인 느낌을 불러낸다. 총알이 튀는 모양을 묘사하는 “파팻. 파파파팻” 같은 낱말들, 시민들이 총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67)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64~71쪽.

그런 “풀썩풀썩 나뒹구는 몸뚱이들” 같은 낱말들, “총탄, 총탄, 총탄” 같은 낱말들의 연속은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거세고 단단하며 강한 느낌을 동반시키고, 이는 “우와와와”나 “으아아아앗. 엄마야아앗.”처럼 울림소리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뒤섞여 총격 상황에 대한 독자의 감각 인상을 더 선명히 자극하는데, 범람하는 감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자의 감각 인상을 자극하며 공수부대의 집단 총격이라는 경악할 장면과 겹친다. 독자의 정동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묘사는 54장 내내 지속되다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는 시민들을 묘사하는 부분과 “‘봉축—부처님 오신 날.’”에 걸린다. 시민들이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어떤 비장함과 참혹함, 슬픈 느낌, 극단적인 어떤 의지에 대한 느낌 등을 자아내는데 이 장면은 애국가 속에서 발포한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대형 아치의 문구 역시 ‘부처님’이 자비나 평화 같은 전인류적 차원의 도덕이나 윤리적 느낌을 즉각적으로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즉 54장도 진행되던 선형적 서사에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이미지적 서사 혹은 장면을 한 장 내에서 병치시킨다. 극명히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는 그 대립적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독자의 체험성을 강화시킨다. 선형적 내러티브의 흐름에 대한 기대가 정지되고 뒤흔들릴 만큼 강한 감각이나 감정적 서사가 개입할 때, 서로 배치되는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 같은 모순적인 감정적 층위에 있어도 정동은 배가된다. 강렬도의 수준은 배중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립적 구분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정동은 모순을 강도적 차원에서 연결시키고 제 성격을 증폭시킨다. 육체적 흥분은 의미론적 차원과 단절되어 진행되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미지의 체험적 성격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다.

3) 장후간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봄날』이 소설의 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장과 장이 전체적 수준에서 극단적으로 대립-충돌하는 경우다. 각각의 장은 이미지적 서사가 진행되며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장의 내용은 바로 앞의 장에서 나타난 내용과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존재한다. 이미지적 서사가 쌓아온 일관된 내용의 흐름이 만들어낸 인상은, 그 인상을 만들어낸 서사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다음 장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낸 감각 인상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고 강렬

한 정동의 증폭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바로 앞 절에서 분석했던 54장의 바로 뒤에 오는 55장(전남대 정문 앞)은 뱃속의 생명을 찬미하는 임신부가 공수부대의 총에 의해 사살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한다.

‘아아, 내 몸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깃들이고 있다니! 아아, 내가, 내가 엄마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 그녀는 아무 때고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날부터 온 세상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다. 햇빛 한줌, 길가의 풀 한 포기,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고 정겨웠다. 첫아기가 태어났고,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안는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 혼자만 온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 속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는 참이었다. 아직 얼굴도 성별도 모르는 두 번째 아기. 앞으로 두 달쯤 기다리면, 이제 그 아기가 찾아올 터였다. 이 햇살 눈부신 세상으로, 마알간 눈망울을 가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었다.

(……)

‘가만, 저 사람이 저기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엉거주춤 서서, 무심히 사내를 바라보았다. 예비군복 비슷한 얼룩덜룩한 제복에 철모를 쓴 사내. 그 사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뭔가 검고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을 얼굴에 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저게 뭐지?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타양!

(……)

이웃집 여자가 시체의 배를 가리키며 눈을 커다랗게 떴다. 순간 어머니는 보았다. 부풀어오른 딸의 배가 돌연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불뚝.

불뚝.

불뚝.

마치 다급하게 심호흡을 하듯이, 혈떡거리듯이, 임신복에 덮인 커다란 배가 세

차게 불뚝불뚝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⁶⁸⁾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임신부 최미화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세상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이다. 그녀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느낀 벅찬 감격은 햇살 한줌, 길가의 풀 한 포기, 작은 돌맹이 하나에 대한 소중함과 정겨움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밝은 믿음을 형성한다. “이 햇살 눈부신 세상으로, 마알간 눈망울을 가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었다.” 최미화의 느낌은 초점화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도 쉽게 전이되는데, 이 같은 감격과 기대, 애정 등은 사실 55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55장은 마치 임신부 최미화를 위해 바쳐진 장이라는 듯 아직 24살 밖에 되지 않은 그녀가 남편에 대해 갖는 애정과 투정, 아이를 키우며 겪는 곤란과 보람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느낌을 행복하게 표현하는데 할애되어 있다. 독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어떤 안온함이나 신뢰감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받게 된다. 때문에 그녀가 늦어지는 남편을 배웅하러 집 앞에 나왔다는 이유로 총을 맞아 죽는 장면은 유독 끔찍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녀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제생을 위해 요동치는 장면과 이를 그린 의태어 “불뚝. 불뚝. 불뚝.”(이는 행갈이 되어 있다)은 그 자체로 어떤 처절함과 처참한 느낌을 만들어낸다(그래서 이 장 역시 卮내 대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이 만들어낸 강렬도는 도청 앞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총격을 그린 장 바로 뒤에 온다는 점에서 한층 더 강렬해진다. 십오만, 혹은 이십 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행된 집단 학살에 대한 이미지적 서사와,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임신부가 생명에 대해 찬미하는 이미지적 서사의 극단적 대립-충돌은 정동을 더 증폭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선행된 내러티브가 만들어낸 독자의 어떤 기대를 멈출 만큼 새롭고 강한 감각 인상적 장면이나 감정적 장면은 내러티브의 층위가 어떻게 변형되든 순식간에 복잡다기한 감각 인상과 다층적인 감정의 차원을 동시에 진행시켜 결국 강렬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살과 생명의 찬미는 대립되지만 그 둘을 보여주는 이미지적 서사의 감정적/신체적 변용affection은 독자의 강렬도를 증폭시키기만 하는 것이다.

56장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봄날』의 체험적 성격을 선명히 드러낸다. 56장은 도청 앞 발포 이후의 상황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이 장은 54장의 서사가 만들어낸 예상되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55장에서 한 번 배반하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내러티

68) 임철우, 같은 책, 77~93쪽.

브에 대한 독자의 기대가 어긋나는 만큼 생겨난 정적인 시간은 그 시간에 대한 상상의 깊이가 깊을수록 정동의 운동으로 가득 차는데, 독자는 56장에 나타난 끔찍한 병원의 상황을 통해 그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을, 그것도 54장에 나타난 생명 말살의 상황 전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56장은 총에 맞은 시민들의 비명과 호소 속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처치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다급함이 주로 그려져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서, 선생님! 지, 집에 연락을 해야 하는디라우.”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가 실려가며 혈떡거린다. 붕대 사이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직원들이 부랴부랴 운반용 병상을 끌고 나갔다.

“간호사, 간호사! 여기 있던 환자, 어디 갔어!”

“네에? 저도 몰라요. 아, 수술실로 옮겼나봐요.”

“아이고오, 의사 선생님. 여기 조까 봐주시요오. 나 죽겠네에!”

“이거 보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정도로로는 안 죽는단 말요! 응급 처치는 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잠시만 복도에서 기다리쇼! 급한 환자부터 처칠 해 알 것 아뇨!”

“여기부터 봐주란 말요! 내가 먼저 왔단 말이요.”

“물, 물 좀 주시오. 목이 타서 죽겠단 말이라우!”

“우진아! 정신차려. 아이고오, 눈 조까 떠보랑께에! 선생님! 의사양바안! 우리 자식 죽소오!”

“선덕남! 이 친구 어디갔나! 뭐라구? 이 판국에 원무과엔 뭇허러 갔어?”

“이봐, 저쪽 3번 베드, 심장 마사지 시도해봤어?”

“늦었어요. 영안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요? 비켜주쇼.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치면 어찌라는 거야?”

“이봐요, 나가요 당장! 찾기는 누굴 찾는다고 그래요?”

“수위 아저씨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불필요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으라니깐.”

“김간호사. 여기! 빨리 지혈부터 하라구. 아니, 그쪽말고, 이쪽 환자!”

“윤원상 선생님. 산부인과에서 찾는데요. 제왕절개 수술, 급하대요.”

“제기랄, 그쪽에 레지던트나 누구 없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여기 수혈부터 빨리 해. 부목도 준비하라구.”⁶⁹⁾

이 인용문은 순전히 어떤 긴급한 위험의 상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급박함이다. 단문 위주의 발화들이 각각의 발화를 설명하는 문장 없이 촉박하게 나타나는데, 병원의 상황이나 환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들이 모조리 처참하다. 수많은 환자들과 환자의 보호자가 저마다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아무렇게나 밀려드는 환자들을 관리하지 못해 간호사고 의사고 모두 아우성이다. 모든 환자가 위급하게 보이는 가운데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쉴 틈 없는 고통 속에서 숨 가쁘게 이루어진다. 모두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절박하다. 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생명들,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간호사와 의사의 다급함을 묘사하는 이 인용문은 생명을 위한 긴박함, 절박함 그 자체가 됨으로서 급박한 느낌들을 강화시킨다. 즉 56장은 생명을 놓고 완벽히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가 전개된다. 56장의 이미지적 서사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박감이나 절박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명을 없애버리려는’ 공수부대의 집단 총격이 만들어낸 처참함, 절망감, 경악스러운 느낌과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이 때 그 대립되는 서사에 의한 감정적 특질은 진행되던 서사 속에 어떤 새로운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서사의 연속성을 일순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또한 54장에 의한 기대를 일부러 배반하며 등장함으로써 고요하게 날뛰던 독자의 정동과 다시 공명한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독자를 자극한다. 감각적·감정적 특질은 서사에서 의미화되는 층위와는 무관하게 54장에 나타난 감각적·감정적 특질과 공명하며 어떤 질적인 강도를 증폭시킨다. 정동은 의미론적 정리 없는 이미지적 서사에서 펄펄 댕다. 『봄날』은 분명 체험적이다.⁷⁰⁾

제3장 이미지적 서사와 재현적 의미의 종결 없는 생성

『봄날』은 87개의 장이 단절적으로 연속하며 존재한다.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이 넘어갈 때마다 시·공간이 비약하고 초점화자가 바뀐다. 설사 여러 장이 같은 시·공간을 무대로 삼아도 여러 인물들이 저마다 다른 체험과 관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하나의 장은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이 다루어지는 한편 초점인물의 상황이나 시점 혹은

69) 임철우, 같은 책, 97~100쪽.

70) 장후내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과 장후간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을 보여주는 부분 역시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불가능하다.

관점 속에서 다른 장과는 다른 어떤 통일된 내용을 갖는다. 각각의 장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일종의 집합이다. 그러나 하나의 장은 잠정적으로 완결된 집합이다. 모든 장의 서사는 다른 장의 서사와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얻는다. 장과 장의 단절적 연속은 각각의 장을, 장 내의 다양한 부분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결국 전체를 끝없이 변화시킨다. 한데 전체는 『봄날』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전체는 여러 장에서 전개되는 이미지적 서사의 배치를 결정하고 장과 장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이행되어 나타날 의미를 규제하는 거대한 관계망으로 존재한다. 전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의 장들은 다른 모든 장과의 연관 속에서 아무런 의미연관도 얻지 못한 채 부유할 뿐이기 때문이다. 장들의 접촉은 전체의 관계성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념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봄날』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 내의 다양한 이미지적 서사가 다른 장의 다양한 이미지적 서사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든 장면들이 서로 어떤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지 살펴야 한다. 즉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서사의 관계 원리다. 여기서 비슷한 내용들의 중첩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소설의 형태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는 의미론적인 서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봄날』에서, 각각의 장면들을 해석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누빔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반복뿐이다. 『봄날』은 그 반복 속에서, 결국 독자의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 서사의 관계에 의해 재현적 의미를 갖게 되며 이미지적 서사는 바로 그 이미지적 특징이 만들어내는 범례성에 의해 여러 해석에 소속되어 재현적 의미를 끝없이 생성한다. 다시 말해 독자가 만들어낸 해석은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의미론적 구조나 문법을 통해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적 서사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이미지적 서사와 내재적 관계를 갖는다.⁷¹⁾ 그러나 『봄날』의 의미론적 차원은 이미지적 특징으로 인해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변화되는 해석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미론적 차원의 끝없는 증식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전체 역시 전통적인 의미에서 총체적 재현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달린 총체성은 이미지적 서사의 전개 속에서 이미 해체 되었다. 전체는 이미지적 서사를 의미론적 차원으로 비약하게 하지만 부분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분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5.18에 대한 의미 연관을 규제하는 열린 전체로써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려면 『봄날』의 모든 장의 내용을 옮겨와 각각의 장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을 낱낱이 해부하며 다른 장과의 연관성 그리고 소설 전체와

71)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같은 책, 92~96쪽. 참조.

의 연관성을 다시 해명해야 할 테지만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근본적으로 각각의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을 전부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만 설명 가능하다), 이미지적 서사에서 산출해낸 해석소를 통해 『봄날』을 분석 하는 작업은 소설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이미 (물론 분석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잉여를 남길 수밖에 없지만) 완성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시민/민중의 저항에 관한 여러 해석을 드러내며 이미지적 서사의 범례성과 그에 의해 증식되는 의미론적 차원을 보여주겠다. 본고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위해 증식되는 의미론적 차원 역시 한정될 것이다.

1) 폭력성과 그 의미론적 증식

본고는 1장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성으로 증오와 전능감, 계엄령 등을 이야기 했고, 2장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 이미지적 서사를 간단히 보여줬다. 예컨대 증오의 폭력이라는 의미론적인 서술은 짧은 이미지적 서사 앞에서도 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의미화 되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한데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이미지적 서사가 『봄날』에서 명시한 의미론적인 서술의 범주를 초과해서 존재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봄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구타와 살상을 한없이 섬뜩하고 잔혹하게 보여주는데 이 같은 이미지적 서사의 양은 언어로 다시 의미화하기 불가능할 만큼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들을 보자.

……맞은편 인도로 우르르 몰려드는 병사들. 도망치던 몇이 보도블록 위로 넘어진다. 일어서려는 청년을 얼룩무늬가 군홧발로 걷어차며 진압봉을 퍽퍽 내려친다. 머리를 움켜쥐며 털썩 뒹구는 청년의 몸뚱이. 벗겨진 신발을 주워들고 달아나려는 처녀가 또 다른 얼룩무늬에게 잡혔다.

“아아 엄마아.”

머리채를 나꿔채자마자 옆구리를 내지르는 군홧발. 고꾸라진 여자의 목덜미를 움켜쥐는다. 부드럽 뜯겨 나오는 흰색 블라우스. 여자의 한쪽 가슴과 흰 어깨가 확대 드러났고, 군홧발이 재차 엉덩이를 걷어찼다. 아스팔트 위로 풀썩 나뒹구는 여자의 작은 몸뚱이.⁷²⁾

72)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11쪽. .

일단 붙잡혀온 사람들에게겐 또 한차례 지독한 몽둥이질과 발길질이 무차별로 퍼부어지는 게 순서다. 이미 녹초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다음엔 무조건 옷을 벗기고 팬티 한 장만 입게 한다. 그리고는 두 손목을 뒤로 돌려 각자 풀어낸 허리띠로 결박한 다음, 트럭 옆으로 끌고 간다. 거기서 한꺼번에 이삼십여 명씩 집합시킨 뒤, 본격적인 구타와 기합이 퍼부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사람의 목에 두 발을 걸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삼백육십 도로 한 번 굴러. 두 번 굴러……”

벌거숭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이 구령을 붙이고 있었다. 두 손을 등뒤로 묶인 채 아스팔트 바닥에 한사코 머리를 거꾸로 박으려고 버둥거리는 벌거숭이들. 그러다가 고꾸라지는 살덩이들을 병사는 군홧발로 짓이기며 욕을 퍼부어댄다. 서로의 목에 다리와 다리를 걸고 이리저리 길바닥을 굴러다니는 살덩어리들. 그것은 마치 꼬챙이에 줄줄이 꿰어진 채 불 위에서 빙글빙글 구워지고 있는 통닭 같기도 하고, 맹렬히 꿈틀거리는 한 무리의 벌레들 같기도 했다.⁷³⁾

“말도 마쇼. 죽더라도 송장이나 남겨야 할 것이다. 공수부대가 죽은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가고 수도 없이 암매장을 하고 있답디다. 아침에 화순 쪽으로 공수부대 트럭이 시체 같은 걸 포장으로 덮어가지고 석 대나 지나가는 걸 나도 지원동에서 직접 봤소.”⁷⁴⁾

세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은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폭력이다. 그들의 폭력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길가에 서 있다가 공수부대의 습격을 받고 도망치는 청년이나 중년사내는 곧 공수부대의 손에 붙들려 진압봉에 두들겨 맞거나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마찬가지로 도망치다 잡힌 작은 여자는 머리채가 잡힌 채 옆구리를 얻어맞는데 와중 블라우스가 뜯겨져 한쪽 가슴과 흰 어깨가 드러난다. 붙잡힌 시민들의 경우는 더 하다. 그들은 단체로 팬티만 걸친 채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거꾸로 박거나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꼬챙이에 줄줄이 꿰어진 채 불 위에서 빙글빙글 구워지는 통닭 같기도 하고 맹렬히 꿈틀대는 한 무리의 벌레들 같기도 하다.

73)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55~156쪽.

74)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62쪽.

도 하다. 급기야 공수부대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시체를 없애버린다.

이 인용문들의 연결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걸까. 어떤 해석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선 저 장면이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희롱하거나 짓밟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폭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증오를 이야기할 수 있다. 증오는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파괴의 감정인데다가, 계엄령은 시민의 법적 인격을 말소시켜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한 축인 법적 보호의 권리를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성민엽의 『봄날』에 대한 연구는 증오의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그에게 공수부대의 폭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광기와 증오(적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광기와 적의는 신군부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⁷⁵⁾ 그렇다면 저 이미지적 서사의 조합은 증오와 제도(성민엽은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도는 이미 계엄령을 포함한다)의 폭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저 인용문의 조합을 증오의 폭력이나 제도적인 것의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것만 같다. 예컨대 단순히 길가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폭력, 여성의 한쪽 가슴과 흰 어깨가 확 드러나는 폭력, 팬티만 입혀 놓은 채 아스팔트 위를 구르게 만드는 폭력, 사람을 벌레처럼 만드는 폭력,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시체조차 남기지 않는 폭력을 증오의 폭력이나 제도적인 것의 폭력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 이미지적 서사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재현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파괴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마침 『봄날』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이 인용문의 연결은 공수부대의 폭력에 대해 존엄성의 파괴라는 의미론적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 이름 모를 시민들의 참혹한 모습들. 그것은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결코 그렇게 죽어서는 아니되었다. 그 누구건, 어떤 이유에 서건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처럼 잔혹하고 처참하게 파괴해버릴 권리는 없는 거였다.

(……)

……한줌의 자존심도 없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이.⁷⁶⁾

주지하다시피 존엄성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

75) 성민엽, 같은 책, 328쪽.

76)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299~300쪽.

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한다. 인간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을 때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로써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자연권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해야 한다는 존엄성의 내용은 한 사회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존엄한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결국 한 사회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존엄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팬티만 입고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극단적으로 문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이 자기 내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믿는 것은 철저히 자족적인 수준의 정신승리적 존엄성이다.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 같은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즉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으며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⁷⁷⁾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존엄성에 대한 사회의 어떤 기준과 떼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와 인간의 존엄성은 정확히 어떻게 관계하는가.

가치 있는 인간, 존엄한 인간은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념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관념은 인간 간의 상호적인 인정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인간의 존엄함과 이를 만들어내는 사회의 사회성은 서로 매개되어 서로가 서로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재구조화하며 서로를 지탱한다. 따라서 한 사회 속의 인간은 그가 사회적으로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형식 속에서만 가치 있는 인간일 수 있다. 인간은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형식을 갖춰야 존엄한 인간이 된다. 인간이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빠지거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세계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모든 사회적 의미망이 파괴된 장소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상실한다. 시체의 유기 역시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타인의 죽음, 특히 자신과 가까운 이의 죽음은 그를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 등의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점에서 인류적 차원의 어떤 애도의 ‘권리’를 형성하게 하며, 때문에 시체는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연관 맺게 하는 매개체로서 극히 중요하다. 인간의 죽음은 어떤 생물학적 존재의 생 멈춤이 아니다. 타인의 시체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의미연관을 만들어내는 죽음으로서 존재하고 그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의 삶과 상보적 관

77) 이에 관해서는 크리스토프 멩게 외, 『인권 철학 입문』, 정미라 외 옮김, 21세기북스, 2012. 참조.

계를 갖기 위한 형식을 이미 갖고 있다. 시체의 유기, 애도의 박탈은 한 인간이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상보적으로 연관할 인류적 차원의 기본적 권리 자체에 대한 박탈이다.⁷⁸⁾ 따라서 공수부대의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망 자체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력이다. 그런데 공수부대의 폭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사회적 형식에 대한 파괴라는 점에서 이를 존엄성의 파괴가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라고 읽을 수도 있다. 인간성 역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사회적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⁷⁹⁾, 공수부대의 폭력이 사회적 형식에 대한 파괴라면 이는 이미 인간성이라는 어떤 성격 자체를 말소시키는 폭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인간답게 되고자 투쟁하는 피압박자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짓누르는 억압자들과의 싸움으로부터, 그들이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인용문을 1장에서 확인한 바도 있다. 하지만 공수부대가 파괴한 인간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봄날』은 시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그리지만’ 무엇을 인간성의 파괴라고 해야 하는지 명시하진 않는다. 우리는 다만 뒤이어 이어질 분석에 나타난 시민들의 모습에서 파괴된 인간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인간성’은 시민들의 저항성을 보여주는 2절까지 분석한 뒤에나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몇몇 이미지적 서사를 연결시킴으로써 존엄성/인간성과 존엄성/인간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미망의 박탈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인용된 이미지적 서사의 접속이 만들어낸 관계가 기존의 의미론적 도식인 증오·제도 등의 폭력을 초월해 존재하며 새로운 재현적 의미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는 어떤 이미지적 서사가 『봄날』 내에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 그러나 결국 독자가 만들어내는 해석소의 층위가 어떤 이미지적 서사의 연결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저 이미지적 서사 중 일부를 혹은 전부를 다른 이미지적 서사와 연결시켜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론적 층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인권 파괴나 부정의한 폭력 등), 거꾸로 『봄날』에 묘사된 공수부대의 폭력 대부분이 폭력을 위한 폭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의 층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어찌면 위의 이미지적 서사의 조합 자체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재현적 의미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봄날』이 만들어낸 이미지적 서사는 제 이미지적 특징으로 인해 언제나 어떤 의미론적 층위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의미론적 층위를 초월해 존재한다.⁸⁰⁾ 공수

78) 에티엔 발리바르, 같은 책. 참조.

79) 사회적 형식과 인간성에 관해서는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7. 참조.

부대의 폭력에 대한 의미론적 층위는 무한히 증식한다. 뒤이어 이어질 분석도 이를 증명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본고에서 이 인용문들은 공수부대의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만들어낸다고 가정된 조합이다.

“너희들. 옛날부터 군대에서 왜 전라도놈들을 따블백이라고 부르는 줄 알어?
(……)

그러니까 따블백이란 말을 풀이하자면 등이 두 개란 말야. 즉 이중성격자. 걸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쓰지만, 돌아서면 이내 배신을 잘하는 족속들이다, 라는 뜻이란 말썬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나?……그래서 너희같은 녀석들 보고 따블백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썬야. 알어?……”⁸¹⁾

사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추상사의 주먹이 먹, 하고 사내의 얼굴을 후려쳤다. 짧게 신음을 토하며 비틀거리는 사내. 추상사의 발이 또 한번 사내의 옆구리를 내질렀다. 저항도 못 하고 엉겁결에 사내가 두어 걸음 물러서서 몸을 가리는 시늉을 했다. 추상사는 침방울을 튀기며 악을 썼다.

“야, 이 새끼! 너 걸은 누르스키들이 경찰이라고? 영. 우리가 지금 너 시키들 좇 빨라꼬 여기까지 내려와가꼬 이 고생 하는 줄 아나? 알고 보이, 경찰이고 대학생놈들이고간에 이 쌍누르스키들이 모조리 빨갱이 한통속이구마. 야, 이 새끼! 우리가 으째 왔는 줄 아나. 느덜, 전라도놈덜은……”⁸²⁾

“대가리 박앗! 안 들렸! 이 빨갱이시키들앗!”

호송 임무를 맡은 통신병들이 진압봉을 사납게 휘둘러대며 차 위에서 고래고래 악을 썼다. 별거숭이 몸뚱이를 닥치는 대로 짓밟으며 그들은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⁸³⁾

80)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인용문들이, 아니 사실 뒤에 이어질 모든 인용문들이 다른 의미론적 층위에서 어떻게 호명되지를 살펴야 하지만 이는 글 전체의 난삽함을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특징은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81)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178쪽.

82) 임철우, 같은 책, 66~67쪽.

83) 임철우, 같은 책, 158쪽.

“야, 이 빨갱이새끼! 어디 한번 나 좀 살려달라고 악을 써봐! 저 새끼들한테 빨랑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해보란 말이다! 김대중이한테 구해달라고 빌어보란 말이다, 씹거튼 빨갱이새끼들아! 엉!”

추상사는 한껏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길 건너편은 어느새 훨씬 많은 숫자로 불어나 있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구경꾼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⁸⁴⁾

“그때 미순의 곁에 서 있던 중년 아낙네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으마마, 저 소리 들었는가? 김대중이가 간첩질을 했다잖여?””⁸⁵⁾

여기 조합된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공수부대의 어떤 이데올로기다. 빨갱이, 간첩, 전라도, 따블백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반복되며 광주 시민들에 대한 공수부대의 사고의 프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빨갱이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수부대원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도 ‘적’으로써 인식되는데, 공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시민들에 대해 빨갱이라는 규정을 이미 내렸다. 그들의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위에서 존재했다. 1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분단전쟁을 거친 한국에서 ‘빨갱이’는 만능키다. 반공주의는 내부의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계엄령도 좋다는 초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빨갱이’ 이데올로기보다 그들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없다. 문제는 공수부대의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빨갱이=전라도=따블백=김대중이라는 도식으로 전환된다는 데 있다. 이 도식에 의해 전라도=광주의 시민들 역시 적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한데 저 낱말들이 갖는 상징성은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공수부대원들의 발화는 단순히 그들 개개인만의 발화가 아니다. 그들의 발화는 그들이 떠맡고 있는 상징적 위치로 인해 나타난다. “김대중 곁은 빨갱이시킴”라는 발화 자체는 신군부라는 지배적 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승인한 발화이며, “전라도”와 “따블백”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전라도 비하를 그대로 내면화한 발화다. “너희들. 옛날부터 군대에서 왜 전라도놈들을 따블백이라고 부르는 줄 알어?” 그들의 증오와 혐오는 지배의 구조적 관계를 재인용하고 재기입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그들이야말로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불순세력임을 주장

84) 임철우, 같은 책, 169쪽.

85)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46쪽.

한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야, 이 새끼! 너 겉은 누르스키들이 경찰이라꼬? 영. 우리가 지금 너 시키들 좇 빨라꼬 여기까지 내려와가꼬 이 고생 하는 줄 아냐? 알고 보이, 경찰이고 대학생놈들이고간에 이 쌍누르스키들이 모조리 빨갱이 한통속이구마.” 그들은 그들의 수신자에게 그들의 논리를 강제적으로 기입하려 한다. 공수부대의 발화는 지배논리의 ‘입’이다. 그들의 증오와 혐오에는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소속감을 강화한다. 공수부대원들은 개별적 존재로서 발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선함으로 존재하는 집단의 논리(빨갱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한다.⁸⁶⁾ 그들의 증오와 폭력은 철저히 무반성적이다.

공수부대의 무반성적인 증오·혐오나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의 논리나 관습화된 사회적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결과임을 보여주는 저 인용문들은 『봄날』의 다른 부분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속됨으로써 또 다른 재현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추상사의 폭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본고에서 논증하는 다른 의미론적 층위로 들어간다. 추상사가 경찰마저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악을 지르는 모습이나 다수의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하며 잔혹하게 구타하는 모습은 증오의 폭력을 보여주는 명치의 폭력 장면과 연결될 때 증오의 폭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공수부대에게 하달된 진압작전을 보여주는 부분과 연결하면 제도적인 폭력이 되며, 앞서 존엄성과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가정된 인용문과 연결되면 존엄성, 인간성, 존엄성/인간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형식에 대한 폭력이 된다. 이미지적 서사는 이토록 범례적이다. 이미지적 서사는 여러 재현적 의미를 허락하되 자신을 그 의미론적 차원에 봉인시키지 않는다.⁸⁷⁾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공수부대의 폭력이 『봄날』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 고향에 대한 파괴임을 보여주는 인용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고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을 먼저 분석하겠다.

“저어, 제 소개부터 드리고 인사를 올릴랍니다. 제 이름은 천만채, 일만 만 캔 채라고 씁니다.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뵈시고 인사를 올리게 되어 뭐라고 표

86) 증오 발언과 사회적 지배 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레나타 살레클,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3;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랩, 2016. 참조.

87) 전라도=따블백에 관한 부분은 『봄날』에서 사회적 빈곤 및 평등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결합시켜 5.18이 신군부의 권력 의지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간첩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인용문은 신군부가 실행한 해방 광주 분열 작전 중 일부가 만들어낸 효과라는 점에서 그들의 비열함, 곧 그들이 만들어낸 정권의 추악함과 부정의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

현할 수 없이 기쁘고 감개무량하구만요. 오늘에사 저가 참말로 진짜 고향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이 목도록 진짜 고향이 어딘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⁸⁸⁾

불현 듯 고향 마을 앞바다가 봉배의 눈앞을 스쳐지나간다.

봉배네 마을 시목리는 흰 모래밭이 아름다웠다. 활처럼 둥글게 휘어져들어온 해변의 모래는 비단처럼 보드랍고 따스했으며, 바닷물은 햇살을 받아 언제나 은비늘을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민들레 꽃씨들처럼 포르르르 달려가던 모래알들…… 그 모래밭으로 달려나가 봉배는 두 동생들과 함께 두꺼비집을 쌓기도 하고 조개껍질로 소꿉장난을 하며 놀았다.

(……)

‘그러나 이젠 아무도 없다. 내 곁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여.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봉구도 봉순이도 없다. 찾아야 하는데. 그 녀석들을 어서 빨리 찾아내야 쓰꺼인다.’⁸⁹⁾

각각의 인용문은 ‘고향’이라는 곳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들에게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다. 여기서 고향은 공동체성과 근원성, 유년의 행복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봉배에게 고향은 유년과 연결되어 평화롭고 안락한 곳으로 회상된다. 그에게 고향은 자신과 동생을 둘러싼 흰 모래밭 풍경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결속되는 상징적 공간이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민들레 꽃씨들처럼 포르르르 달려가던 모래알들…… 그 모래밭으로 달려나가 봉배는 두 동생들과 함께 두꺼비집을 쌓기도 하고 조개껍질로 소꿉장난을 하며 놀았다.” 때문에 고향은 마치 가정의 연장이나 확대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서는 사랑과 정, 그리고 혈연적 유대감이 뜨겁게 존재한다. 천만채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나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고향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뒤희고 인사를 올리게 되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감개무량하구만요. 오늘에사 저가 참말로 진짜 고향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고향과 아버지의 상실을 자신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가장

88) 임철우, 같은 책, 181쪽.

89) 임철우, 같은 책, 321쪽.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답에 대한 상실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에게 고향은 자신의 본질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는 고향을 이루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그 구체적 일원이 되어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간의 소외나 익명적 느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모든 이는 연결된다. 즉 봉배와 천만채가 보여주는 고향은 평화롭고 안락한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곳이다.⁹⁰⁾

공수부대의 폭력이 고향에 대한 파괴임을 보여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새끼,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공수부대라고 해도 그렇게, 즈그 고향에 내려와가고 그것이 제정신 가진 놈 할 짓이여?”⁹¹⁾

“왜요? 니기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요. 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 버릴라요. 나도 전라도놈이고 반장님도 전라도놈요. 전라도 땅에서 나고 대가리 굽어진, 피차 똑같은 별볼일 없는 따블백 전라도놈들 아니냐 말요. 맞지라우? 그러디, 시방 우리가 고향땅에 와가고, 무슨 미친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광주놈들은 모조리 빨갱이라고라우? 그러니 닥치는 대로 싸그리 굽어버리자고라우? 허, 개쌍누무시키들, 반장님도 그 말을 민소? 솔직히 말해보쇼. 언제부터 전라도놈들이 싸그리 빨갱이들이 됐단 말요, 예? 대관절 우리가 이래도 된단 말요? 어린애들, 여자, 노인네들까장 그야말로 개돼지 잡디끼, 이렇게 닥치는 대로 죽여도 되느냐고요……”⁹²⁾

두 인용문 역시 고향의 특별한 의미를 드러낸다. 각각의 이미지적 서사는 자신의 고향에서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준다. 고향은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공수부대라고 해도” 결코 그와 같은 폭력이 펼쳐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왜 안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위에서 살핀 이미지적 서사의 묶음이 답해준다. 고향은 어떤 행복한 유년의 기억이나 혈연의 정이 존재하는 곳이고, 개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곳이다. 고향은 개인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이를 보증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폭력은 자신과 근원적으로 연결된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자, 유년과 연결된 어떤 아름다운 기억, 안온함, 푸근

90)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참조.

91)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45쪽.

92)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147~148쪽.

함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광주 출신인 명치와 임상병의 폭력을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적 서사는 증오의 폭력이자, 존엄성 파괴, 반사회적 폭력 등의 재현적 의미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⁹³⁾

다음은 공수부대의 폭력이 일종의 수용소에서 펼쳐진 장면이다.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붙잡아다 가둬놓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곳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다. 공간의 고립성은 타자의 시선을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책임의 부재를 만든다. 책임이 없다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⁹⁴⁾ 하지 못하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없다. 공수부대의 폭력의 존엄성 파괴와 반사회적 성격은 여기서 진정으로 극한에 이른다. 그나마 남아 있던 한 푼의 망설임도 완벽하게 제거된다. 이곳은 신군부의 전체주의적 폭력성이 해방된 곳이다. 공수부대의 악에 받친 증오와 분노는 무차별적으로, 정말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퍼부어진다.

땅바닥을 기어온 사십여 명의 시민들은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예 혼이 달아나버렸다. 이번에는말로 본격적인 구타와 기합이 시작되었다.

(……)

진압봉과 소총, 군화발, 주먹 등등을 동원한 무서운 구타 의식은 거의 삼십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허수아비처럼 풀썩풀썩 나자빠진다. 탈진해 나자빠진 몸뚱이 위로 발길과 몽둥이가 미친 듯 춤을 추었다.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겨나가고, 팔이 부러져나가고, 갈비뼈가 무너졌다. 콘크리트 바닥엔 피와 땀과 오줌이 흥건히 고이고, 찢어진 살점이 핏물과 함께 사방으로 튀었다.⁹⁵⁾

“이럴 수가 있냐! 김종사가 죽었어. 앞바퀴에 그대로 깔려서!”

“니들은 못 봐서 그래. 그 꼴을 못 봤지? 즉사했어!”

“우리 중대장도 깔렸데이! 바퀴가 허리를 깔고 지나갔단 말이다.”

“으아아! 이 개새끼들이!”

(……)

“이 개새끼덜! 다 찍어빠려야 해!”

93)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장면은 고향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되기도 한다.

94) 수용소와 책임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 같은 책, 230쪽. 참조.

95)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275쪽.

그것이 신호이거나 하듯, 나머지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시민들을 향해 한꺼번에 우르르 뛰어나온다. 그들은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걷어차고 짓밟고, 주먹을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아, 죽어봐라. 우리 대원들을 적였으니, 니들도 죽어 보란 말이다!”⁹⁶⁾

갈증 때문에 소변기에 머리를 처박은 사내도 있었다. 한 시간 전쯤이었다. 처음엔 아예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주지도 않았다. 더러는 앉은 채 강의실 바닥에다가 똥오줌을 싸야 했다. 옷을 입은 채로 똥을 눈 사람은 그 때문에 또 한바탕 초주검이 되도록 구타를 당했다.⁹⁷⁾

이 곳의 폭력은 어떠한 정치적 효과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순수한 폭력이다. 잔혹했던 거리의 폭력은 빨갱이 이데올로기라도 있었고, 전시효과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수용소의 폭력은 다르다. 여기에 가뒀진 시민들은 오직 공수부대의 증오와 원한, 복수심에 의한 분풀이 대상이다. 자신의 동료의 죽음에 격분해서 뛰쳐나온 군인들의 구타에는 이유가 없다. 그들의 폭력에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광기와 분노를 터트릴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이다. “그것이 신호이거나 하듯, 나머지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시민들을 향해 한꺼번에 우르르 뛰어나온다. 그들은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걷어차고 짓밟고, 주먹을 휘둘러대기 시작한다.” “이 새끼들아, 죽어봐라. 우리 대원들을 적였으니, 니들도 죽어 보란 말이다!” 살인 행위에 가까운 구타와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기지 않는 구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으며 물도 못 마시하게 하는 행위, 갈증 때문에 소변기에 머리를 박고 똥오줌을 제 옷에 싸야만 하는 처참함, 똥을 제 옷에 썼다는 이유로 초주검이 되도록 당하는 구타,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바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완벽한 신체화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결국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상이나 망상 이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⁹⁸⁾ 인간은 고통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육체성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덕적 괴로움과 달리 신체적 고통은 자기를 자기 신체에만 결사적으로 붙들어 놓는다. 도망칠 곳도 없고 회피할 곳도 없다. 수용소의 고통과 괴로움은 고통과 괴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96) 임철우, 같은 책, 302~303쪽.

97)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9쪽.

98)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안미현 옮김, 길, 2012, 30쪽. 참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양되기만 한다.⁹⁹⁾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능한 곳에서 죽음에의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일 모양이여!”¹⁰⁰⁾ 신체의 고통은 삶을 철저히 궁지로 몰아간다. 그들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파괴된다. 혹은 완벽히 파괴되기도 전에 이미 파괴되었다. “아예 혼이 달아나버렸다.”는 문장은 수사가 아니다. 인간의 육체가 파괴되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 파괴될 수 있다. 수용소의 결과는 영혼 없는 인간, 살덩어리로 환원된 인간의 양산이다. 계엄령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 개인의 개별성과 기본적인 생존권의 철저한 박탈, 신군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폭력이 이 수용소만큼 완벽하게 실행된 곳이 또 있을까.

물론 수용소의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각각의 이미지적 서사는 다른 이미지적 서사와 연결됨으로써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의미론적인 서술이 부재하는 서사는 다른 서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든지 제 성격을 바꾼다. 인용문에 나타난 모습은 수용소에 갇힌 시민들의 정신적 활동이 완벽히 박탈되고 순수한 육체성으로만 환원되는 장면이지만, 병사들의 발화에는 증오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다가 수용소라는 공간 자체는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마찬가지로 갇힌 시민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해 하의에 똥오줌을 갈기고 갈증 때문에 소변기에 머리를 처박는 모습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모습이자 도덕과 문화가 말소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반사회적 폭력, 인간성 파괴라는 재현적 의미로 다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살필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비인간-괴물성이다. 『봄날』에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수도 없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겪는 시민들의 반응은 명백히 비인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시민들에게 공수부대의 폭력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위는 차마 못 할 겁니다. 빨갱이들 잡아다가 고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이구.”¹⁰¹⁾

“으마 으마. 저놈들이 참말로 한국놈들이까? 저건 인간들이 아니여. 사람 때

99)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01, 75~77쪽. 참조.

100) 임철우, 같은 책, 188쪽.

101)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28쪽.

려직이는 개백정들 아닌가 말여!”¹⁰²⁾

“오메오메. 이럴 수가 있대요. 저놈들이 짐승이지 사람새끼들은 절대 아니란 말요.”¹⁰³⁾

“야, 이 짐승 같은 새끼들! 너희들도 사람이냐아!”¹⁰⁴⁾

“저 짐승 같은 놈들은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이젠 공중에서 기총 사격까지 해대다니!”¹⁰⁵⁾

인용문에서 명확히 확인되다시피 시민들에게 공수부대원들은 인간이 아니다. 개백정이거나 짐승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을 저질렀다. 그들의 폭력은 인간 아닌 자의 폭력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자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으로써 존재할 때 그러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되 인간 아닌 자가 되는 걸까. 핵심은 시민들이 믿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준 너머에서 공수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을 지탱한다. 타인의 삶이 자신의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근본적인 층위의 믿음이 서로의 관계를 항상적 전투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 모두의 적절한 공존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가능한 예측은 필연적이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 문화, 법 같은 공통된 규범적 차원이 이를 가능케 한다. 인간은 이 같은 공통된 규범적 차원 내에 있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한데 공수부대의 폭력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버린 폭력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품을 수 있는 믿음,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믿음은 공수부대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준과 믿음 너머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다. 그들은 시민들이 믿었던 인간성의 완전한 바깥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인간도, 인간 아닌 것도 아닌 비인간, 즉 괴물이다.¹⁰⁶⁾ 공수부

102)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10, 92쪽.

103) 임철우, 같은 책, 181~182쪽.

104)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07, 145쪽.

105)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111쪽.

106) 슬라보예 지젝,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 윤리적 폭력을 위한 변명」, 케네스 레이너드 외, 『이웃』, 정혁면 옮김, 도서출판b, 2010, 230쪽 참조.

대의 폭력은 ‘비인간의’ 폭력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밝혀내는데 필요했던 모든 인용문은 여기서 다시 존재해야 한다. 공수부대가 비인간이라면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모든 장면은 비인간의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공수부대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고 선별된 문장들은, 그 문장들이 공수부대의 폭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규정하는 모든 의미론적 층위의 성격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너희도 사람이냐”는 외침은 공수부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혹은 어떤 해석소를 통해 존재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론적 차원을 만들어내며, 그 이미지적 관계는 마치 별자리처럼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될 잠재성을 여전히 남긴 채 존재한다. 이는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이미지적 서사가 범례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재현적 의미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공수부대의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석에도 의미론적인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봄날』에서 밝혀진(질)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어떠한 정교한 해석도 그 폭력성을 고정시킬 수는 없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별자리를 잇는 방식에 따라 무한히 증식될 것이다. 이는 시민/민중의 저항을 살피는 다음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2) 저항성과 그 의미론적 증식

본고는 1장에서 본격적인 항쟁이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금남로의 지리적 특징, 루머가 만들어낸 불안감, 공수부대와 맞서 한데 모인 시민들의 어떤 연대감, 분노, 불씨, 전옥주의 가두방송, 어둠, 불길, 사랑, 정의로운 힘과 용기, 인간성을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이 같은 재현적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 이미지적 서사의 성격을 언급했다.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이미지적 서사는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줬던 앞 절에서와 같이 1장에서 다룬 의미론적인 층위를 초과해서 존재했다. 시민들의 항쟁에 대한 『봄날』의 재현적 의미 역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무심히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을 겨누고 무차별로 몽둥이질을 퍼붓고, 노인 아녀자도 가리지 않는 저 잔인한 광기는 대관절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침략군도 이방의 적군도 아닌, 이 나라의 국군이란 말인가 저들이?¹⁰⁷⁾

“야, 이 나쁜 놈들아. 느그들도 대한민국 군대냐. 이놈들아. 아이고, 이 짐승 같은 놈들아!”¹⁰⁸⁾

“아이고, 참말로 세상이 망하기는 망할라는갑서. 대체 이 난리가 벌어진 판국에 나라에서는 뭣을 하고 자빠졌댜요. 쳐내려와서 저놈들을 사그리 싸적이든지 안 하고?”

“뭘 소리 하요 시방? 나라가 어딴댜요? 광주 사람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릴라고 공수부대를 내려보낸 놈들이 바로 정권 잡은 군인놈들인디, 아, 나라는 무신 나라며 또 저놈들 싸적일 놈들은 누구라고 그런 한심헌 소릴 하고 있으까이. 내 참.”¹⁰⁹⁾

“세상 천지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단 말요. 김일성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국민들이 비싼 세금 줘서 만들어놓은 군대가, 공산당 대신 무고한 우리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대검으로 찢러적이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요.”¹¹⁰⁾

이 인용문들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재현적 의미는 안전에 대한 생각과 거짓된 나라에 대한 부정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분명하다. 그들은 안전을 지켜줄 나라와 군대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왔고 특히 군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던 막강한 무력 집단이었다. 한데 5.18은 군대와 나라가 광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사태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과 국가의 신뢰 관계를 완벽히 으스러트렸다. 이제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의 군대를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잔혹한 폭력을 명령한 신군부의 나라 역시 나라가 아니다. “뭘 소리 하요 시방? 나라가 어딴댜요? 광주 사람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릴라고 공수부대를 내려보낸 놈들이 바로 정권 잡은 군인놈들인디” 그들은 국민의 안전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에 가깝다. 때문에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상징적 지위를 보증해주던 지배질

107)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45쪽.

108)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40쪽.

109) 임철우, 같은 책, 113~114쪽.

110) 임철우, 같은 책, 179쪽.

서와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기존의 지배적 보편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집합적, 주권적 존재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려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의 인용문들을 덧붙이면 이에 대한 정교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마다요. 대한민국이 민주 국간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 안 둘 것이제라우. 암, 아문이라우……”¹¹¹⁾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양산 대한사아람 대한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군중 속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¹¹²⁾

“살인마 공수부대 물러가라앗!”

“광주 시민 만세에!”

이내 누군가의 입에서 처절한 구호 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대열의 훨씬 앞쪽, 텅 빈 차도 안으로 태극기를 든 청년 대여섯 명이 돌연 튀어나갔다. 청년들은 차도 한가운데 멈춰선다. 공수부대 쪽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¹¹³⁾

광주 시민들은 애국가와 태극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신군부의 독재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징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애국가와 태극기에 대한 전유는 신군부의 나라에 대한 비판적 부정이 되는 동시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상징은 진정한 민주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과의 동일시를 뜻한다. 그들은 국가를 포기한 게 아니다. 그들이 부정한 것은 현존하는 신군부의 독재국가다. 그들은 신군부의 독재국가와는 대별되는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그러한 국가를 바란다고 가정된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다. 시민들은 독재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저항한 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론적 차원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인용한 모든 이미지적 서사 역

111) 임철우, 같은 책, 182쪽.

112)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90쪽.

113)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68~69쪽.

시 제 이미지적 특징으로 인해 다시 다른 의미론적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공수부대의 폭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증오의 폭력이나 제도에 의한 폭력을 보여주는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고, 시민들이 공수부대에 맞서 시위하는 장면은 뒤에서 살필 영웅적 용기나 상잔의 비극이라는 재현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존엄성이나 인간성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적 서사들과 연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공수부대에게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절규하는 부분이 그들의 비인간-괴물성을 보여주는 부분과 결합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각각의 인용문들은 어디로든 뺏어갈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새로운 상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의 저항성을 보여준다고 가정된 부분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이나 상잔의 비극 같은 다른 의미론적인 층위에서 결집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집단적 항쟁이 시작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다. 시민들이 하나의 항쟁 공동체가 되어 항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참된 나라에 대한 열망 뿐만은 아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연월에는 (이미 가까워진) 타인의 무고한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시민들의 변화도 존재했다.

“어쩌까! 우리가 이려고 있어서야 쓰겠는가라우. 예예? 이러다가 우리 광주 사람들, 저놈들 손에 모조리 죽게 생겼소. 너도나도 나서야잖겠는가 말요!”¹¹⁴⁾

명기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민태와 기섭도 함께였다. 현대극장 앞에서 때마침 우회하려는 택시 한 대를 세웠다.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살덩이를 뒷자리에 실었다. 순간 명기는 억, 신음 토해내며, 두 눈을 감고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얼핏 드러난 사내의 얼굴. 그 한가운데에 무엇인가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다. 탁구공처럼 둥글고 희멀건 빛깔의 그것은 사내의 튀어나온 눈알이었다.

택시가 급히 출발했다. 명기는 길가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울컥 구열질이 치밀었다. 담벼락에 이마를 기대 채 토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끝내 명기는 흐읍,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야 임마! 울긴 왜 울어, 병신같이! 저 개자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

114) 임철우, 같은 책, 93쪽.

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야 임마!”

등뒤에서 민태가 울먹이며 그렇게 बारबार 악을 쓰고 있었다.¹¹⁵⁾

“자, 일어섭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더 이상 잔악한 공수부대의 총칼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섭시다. 원수를 갚읍시다. 자랑스런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로운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모두 도청 앞으로 집결합시다아…….”¹¹⁶⁾

각각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수부대의 폭력에 희생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해 다른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것을 확인한다. 공수부대는 다른 광주 시민들을 형편없이 망가트리고 목숨을 끊어놓는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강한 연민과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수동적으로(어쩌면 트라우마적¹¹⁷⁾으로) 경험한다. 이때 이 감정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하게 결속시킨다. 아니, 이미 강하게 결속시킨 상태다. 구타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연민 compassion은 그들의 불행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주관적 해석과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발생하고¹¹⁸⁾, 공수부대에 대한 분노는 구타당하는 시민이 굉장히 부당하고 심각한 일을 겪고 있다는 믿음과 지각 속에서 이미 그를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다. 타인을 위한 분노는 그 타인이 자신과 가까운 존재이며 그에게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슬픔 역시 타인과의 관계를 강하게 연결시키는 혹은 이미 연결시킨 감정이다. 슬픔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지냈기 때문에 가능한데, 타인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가깝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인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슬픔은 타인을 이미 가까운 자로 받아들였을 때에만 가능하다. 연민과 분노, 슬픔 등의

115) 임철우, 같은 책, 140~141쪽.

116)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32쪽.

117) 이를 트라우마로 해석할 때,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살아남은 이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애도가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최소한의 극복을 위해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즉 『봄날』에서 진행되는 항전 전체가 일종의 애도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적 서사는 제 성격을 다시 변이시키고, 『봄날』의 재현적 의미는 끝없이 증식한다.

118) 이는 타인의 고통에 자신을 이입하지만 타인과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치는 감정이 입이나, 타인에 대한 측은한 감정에 머무르는 동정sympathy과 명백히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554쪽. 참조.

감정은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결속시키고 우리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삶을 타인에게 휘말려둘게 한다. 게다가 희생되는 다른 시민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자신들도 공수부대의 극단적인 폭력에 희생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공통의 취약성, 공통의 상실, 공통의 분노 등은 시민들 개개인을 공통의 “우리”로 묶는다.¹¹⁹⁾ 시민들 개개인은 고통 받는 타인에 의해, 고통 받는 타인을 위한 존재로 형질변화했다. 물론 여기에 쓰인 인용문에서도 다른 재현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 나타난 공수부대의 폭력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재현적 의미로 스며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인용문은 상잔의 비극이 증오와 원한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용문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민들의 용기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부대에게 저항했다. 그들의 용기는 개인적인 이기적 욕심에서 비롯하지 않았고 오로지 타인과 인간성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웅적이었다.

그 틈을 타서 방독면을 쓴 외계인들의 무리가 빠른 속도로 급습해내려온다. 백여 미터쯤 전진했다가 그들은 다시 서둘러 복귀하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수십 명씩 붙잡혀 끌려갔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중학생도 섞여 있다. 끌려간 사람들은 공수부대 후미의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끔찍한 구타를 당한다. 그 광경을 먼발치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운 비명만 질러댄다.

그러나 시민들은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다.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안개가 조금 뜰해지면, 사람들은 이내 차도로 재빠르게 물러나온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고통스레 감싸쥐면서도 그들은 악착같이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다.¹²⁰⁾

……바로 그 순간 대열의 훨씬 앞쪽, 텅 빈 차도 안으로 태극기를 든 청년 대열섯 명이 돌연 튀어나갔다. 청년들은 차도 한가운데 멈춰선다. 공수부대 쪽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119)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12, 45~61쪽 참조.

120)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89~190쪽.

순간 ‘앞아 썩’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 저격수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타—앙.
 타타타타타—앙.

.....

이내 또 다른 청년들 네댓 명이 차도로 뛰어나갔다. 길바닥에 떨어진, 피 문
 은 태극기를 집어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타타타타탕. 다시금 총성
 이 터지고, 청년들은 집단처럼 맥없이 푹푹 고꾸라졌다.¹²¹⁾

이 장면들은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자욱한 페퍼포그와 최루탄의 안개 속에서 방독면을 쓴 공수부대와 백병전을
 벌인다.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끌려가고 끔찍한 구타를 당한다. 그들은 무력으로 공
 수부대와 싸울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전진한다. 심지어 시민들은 도청 앞 집단
 총격 이후에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태극기를 든 시민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
 또 다른 시민이 나가 태극기를 휘두른다. 그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또 다른 시민이 뛰쳐
 나가 태극기를 휘두른다. 광주의 이름 없는 시민들은 위험과 고통 앞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절실한 의지를 보였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했고 생존 본능을 넘어섰으며 모든 이
 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들의 용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웅적이었다. 왜 그들
 의 용기는 영웅적인가. 우리는 용기란 사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실제로 삶이 자아의 쾌락원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심지어 나쁜 일을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삶을 지탱하는 근본
 적인 힘이다. 때문에 누군가의 용기가 미덕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으려면 그 용기는 개
 인의 이기주의를 초월해야 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용기가 그렇게 존재할 때 어
 떤 문화나 도덕, 제도를 정립하고 그 모든 것이 효력을 갖게 한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이 어떤 질서를 형성하거나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용기는 존
 경을 자아낸다. 그들의 용기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용기가 아닌, 상실한 도덕을 세우고
 인간성을 회복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극도의 위험 앞의
 용기, 영웅의 용기다.¹²²⁾ 한데 사실 『봄날』에서 공수부대와와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은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중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없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용기라는 의미론적인 차원을 형성할 장면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성, 예컨대

121)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68~69쪽.

122) 앙드레 콩트-스푹빌, 『미덕이란 무엇인가』, 조한경, 까치, 2012, 57~68쪽. 참조.

존엄성이나 인간성 파괴라는 차원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적 장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는 시민들의 저항성을 보여주는 여러 의미론적인 층위에도 적용된다. 가령 시민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을 두고 참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행동, 존엄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불씨의 의미다. 물론 불씨가 갖는 의미는 1장에서 밝혀진 바 있다. 우리는 불씨에 대해 거론하는 『봄날』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 이를 정리했다. 예컨대 김상섭은 시위의 비조직성과 즉흥성을 지적하며 그러한 항쟁이 가능한 연유로 불씨를 이야기했고, 명기는 공포와 두려움을 있게 만든다고 했으며, 윤상형은 그리움의 불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씨는 본래적인 것이며, 고향, 유년의 기억, 어머니, 사랑과도 연결되었다. 한데 이렇게 나열된 불씨의 특징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불씨의 역할은 뚜렷한데 불씨의 존재론적인 성격은 모호하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힘, 시위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힘, 그리움, 본래적인 것, 고향, 유년의 기억, 어머니, 사랑 등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나열되는 성격,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이미지적인 서사를 통해 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격일 뿐이다. 우리는 불씨가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불씨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인파는 거의 오천 명도 더 될 듯싶었다.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보고는 그 엄청난 규모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엄청난 공포와 슬픔, 그러나 차마 대적하기엔 너무나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상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있어야만 했던 간절한 분노와 복수에의 소망—그것이 이젠 결코 몇 사람 소수의 것만은 아님을 확인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이 순간 그들 모두를 숙연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주 짧은 동안, 알 수 없는 침묵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소리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엄청난 힘을 아슬아슬하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불현 듯 저마다 이상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불씨.

그것은 바로 불씨였다. 저마다의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지금껏 아스라하니 잊혀져 있던 한 오라기 자그맣고 희미한 불씨 하나가 이 순간 불현 듯 깜박 하고 깨어나, 마침내 꿈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건 슬픔이나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하고, 혹은 뜨거운 분노 같기도 했다. 아니, 그 전부이거나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훨씬 이전,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그 불씨가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마다의 유년의 기억이라든가 어머니 · 고향 따위의 이름을 떠올리곤 할 때면, 지금껏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희미한 불씨의 존재를 문득문득 기억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놀랍게도 그 불씨가, 저마다의 가슴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틈에 소리없이 그들의 어두운 가슴을 환히 밝히면서 전신을 따듯한 온기로 채워가고 있었다. 울컥 목젓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그들은 저마다 등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주변의 낯선 얼굴들을 새삼스레 돌아다보기도 했다. 그러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들이 불현 듯 형언하기 어려운 애정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광주 사람이라는 것, 오직 맨주먹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함께 몸을 맞대고 서 있다는 것—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갑자기 서로에게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하는 느낌이였다.¹²³⁾

불씨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씨를 깨닫게 된 상황은 명백하다. 공수부대에 맞서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로 무리지어 존재할 때, 시민들은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무언가를 느낀다. 같은 적을 눈앞에 두고 같은 문제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잔잔하면서도 소리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다. 이때 시민들은 감동이나 슬픔, 분노,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한 어떤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불씨로 표현된다. 불씨 속에서 시민들은 서로에게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불씨의 특징을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적인 것이 불씨인데 이는 유년의 기억, 고향, 어머니의 표상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불씨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다. 셋째, 불씨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동질감 속에서 서로를 연결한다. 시민들은 이 모든 것을 집단적으로 체험/경험 했다.

그런데 불씨가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내건 힘을 만들어내고 서로 간의 신뢰감과 동

123)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8쪽.

질감을 강화하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하게 한다고 할 때, 이는 지금까지 분석해 온 모든 이미지적 서사의 조합 및 의미론적 차원과 일치하지 않은가. 시민들은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반응해 타인을 위한 존재로 형질변화하여 그들 모두와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또한 거짓된 나라에 대한 부정 속에서 기존의 정체를 탈피하고 참된 나라, 참된 공동체의 새로운 시민이 되고자 했으며,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이처럼 불씨가 항쟁공동체와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된다면 뒤에서 살필 항쟁공동체의 성격과 시민들의 폭력 역시 불씨와 연결된다. 유년의 기억과 고향에 대해서도 이미 1절에서 살핀 바 있다. 고향은 유년에 대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상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이 더 큰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게 해주는 공동체였다. 어머니는 『봄날』에서 잃어버린 존재, 상실한 존재,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어머니는 누군가를 감싸 안고 품어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아아, 그래요. 내가 여기 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마치 어머니라도 되는 양 그렇게, 뜻 모를 소리까지 중얼거리며 잠든 그 남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어주기도 하고, 눈썹과 콧잔 등의 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려보기도 했었다.”¹²⁴⁾ 즉 유년의 기억과 고향, 어머니는 모두 어떤 따뜻함, 포근함, 안온함 같은 부드러운 감각과 사람 간의 유대, 연대, 우정, 사랑 같은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불씨가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면 불씨의 재현적 의미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저항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불씨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은 본고에서 파악한 시민들의 저항성에 대한 여러 재현적 의미의 결합뿐이다. 그것만이 불씨를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불씨의 의미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불씨가 극히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낱말이라는 점에서 불씨에 대한 의미론적 규명은 무한에 가깝다. 가령 정명중은 발리바르의 논의를 빌려 불씨가 개인의 관계체적 성격과 억압 불가능한 최소 상태(인간의 절멸 불가능성)에 대한 기억 또는 그것의 (재)발견이라고 주장한다.¹²⁵⁾ 시민들의 항전이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점, 그들의 저항이 공수부대의 극단적 폭력에 맞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명중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성민엽은 불씨가 본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이상적인 자연 상태와 연관 짓는다. 이러한 판단은 그가 공수부대의 폭력을 제도적인 것의 가장 극악한 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대對 제도라는 도식으로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에게 시위는 제도를 뛰어넘은 이상적인 자연 상태의 모습, 이상적인 아나키의 상태이며, 이는 윤상현

124)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42~43쪽.

125) 정명중, 같은 책, 161쪽.

의 판단처럼 ‘지순한 인간애의 불꽃’과 ‘자유와 정의와 생명을 향한 찬란한 그리움의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⁶⁾ 그러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불씨는 본래적이라는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윤상현의 판단은 항쟁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판단 중 하나일 뿐이다.¹²⁷⁾ 양진오는 불씨의 정체에 대해 조금 더 섬세하고 복잡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불씨가 인간 존재를 옹호하는 상징이며, 죽음을 유포하는 피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저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저마다의 불씨를 기억하게 된 시민들이 자신감과 용기 속에서 모두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불씨가 인간의 아름다운 꿈, 악한 세계에 대한 거부, 갈등과 증오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계되며, 행복감과 완벽한 평화로움의 상징이 된다고 본다.¹²⁸⁾ 양진오의 해석은 제도과 비제도의 도식적인 틀로 불씨를 파악하는 성민엽보다 훨씬 더 세밀한 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씨에 대한 의미론적인 틀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봄날』에서 불씨는 정명중과 성민엽의 해석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양진오의 해석만을 수락하는 것도 아니다. 불씨가 시민들의 저항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결국 불씨로만 존재한다. 도대체 항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물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공수부대의 광기 어린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왜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었는지, 뛰어난 지도자도 조직도 없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그런 항쟁이, 항쟁 공동체가,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력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봄날』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재현적 의미는 이미지적 서사에 의해 종결 없이 생성 중이다. 임철우 역시 불씨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썼다.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 는 아무도 모른다.” 개념이, 산문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시적 비유는 불가피하다.¹²⁹⁾ 불씨는 불씨로서, 불씨가 가리키는 이미지로서, 어떠한 의미론적 틀로도 환원되지 않은 채 우리를 어떤 해석의 무한함에 열어 놓은 채 존재한다.

126) 성민엽, 같은 책, 328쪽.

127) 정신부는 항쟁의 연원에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최후의 순간에 돌연히 충전되는 힘과 용기, 인간의 내밀한 심부에 자리한 정의로움, 순수한 인간애를 둔다. 무석과 명기의 시위 참여 이유는 민주주의나 자유가 아니라 ‘불씨’와 어떤 ‘인간성’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룬다. 신문기자인 김상섭은 어떤 수식어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128) 양진오, 같은 책, 79~81쪽.

129) 이 시적 비유는 『봄날』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봄날』은 분명 5.18에 대한 ‘총체적인’ 재현이 아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공수부대를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항쟁 공동체 자체의 성격이다. 다음의 인용문들을 보자.

사기가 오른 시민들의 투석전은 한층 과감하고 치열해졌다.……거대한 조수의 흐름. 사방의 수로에서 밀어닥치는 물살들은 지금 좁은 수문을 향해 거센 소용돌이를 이루며 무서운 힘으로 솟구쳐흐르고 있다. 수문은 오직 하나. 계엄군은 그 수문을 안간힘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물살은 갈수록 불어나고 수위는 더더욱 격렬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수문은 곧 함몰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¹³⁰⁾

흡사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뭉쳐 이리 흐르고 저리 솟구치며 끝끝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¹³¹⁾

눈앞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서히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각. 어둑어둑해져가는 금남로 도로를 빼곡하게 채운 수많은 차량들. 석양에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2백여 대의 차량들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 채 경적을 울려대며 앞으로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

선두의 12톤 트럭 위에는 청년이 올라서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댄다.

실로 장관이었다. 그 거대한 차량 대열은 금남로 4가를 거쳐 3가로 천천히 진입해오고 있었다. 그것은 강이었다. 불의 강. 불빛의 강.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뜨겁고도 찬란한 불꽃의 강이었다.

“우와아아아!”

“만세에! 만세에!”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가 거리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이백여 대의 차량들이 일제히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해일처럼 터져나온다. 만

130)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89쪽.

131) 임철우, 같은 책, 193~194쪽.

세. 만세. 시민들은 인도로 뛰어올라가 목이 터져라 환호한다.

“민주 기사 만세!”

“만세에! 광주 시민 만세에!”

너도나도 차량으로 뛰어올랐다. 버스마다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다.

“이겼다야! 우리가 이겼다야!”

감격에 겨운 사람들은 차도로 뛰어내려가 운전석에 앉은 기사들의 손을 움켜잡아 흔들기도 하고, 옆사람을 아무나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는 시늉도 하고, 그러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¹³²⁾

“아니라우. 어째, 나는 죽더라도 별로 후회 안 할 것 같으라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아원 출신요. 그런데, 요 며칠 동안 첨으로 나도 인간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것 같아요.……”¹³³⁾

여기 묘사된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개인과 전체가 하나로 융합된 것만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저항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수의 흐름으로 표현되어 있고 도로는 수로로 비유되어 있다. 시민들의 항쟁은 하나의 거대한 물살로서, 계엄군이 막고 있는 수문을 꿰뚫어버리기 위한 힘이다. 그들은 설 새 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페퍼 포그와 최루탄의 소나기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 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열세를 체감할 때 나타난 차량 시위대의 등장은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만들어낸다. 시민들은 수만 명이 모였어도 열세였다. 공수부대의 막강한 전투력은 맨몸뚱이인 시민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순간 2백여 대의 차량 시위대가 합세한다. 차량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 채 경적을 울려대는데 선두의 12톤 트럭 위에는 청년 하나가 대형 태극기를 흔들어댄다. 시민들은 그 광경 속에서 일제히 박수를 치고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르며 주위의 사람들을 부둥켜안고 평평 운다. 이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개체와 전체가 융합된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런 무기와 힘이 없는 시민들이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만난 차량 시위대에 대해서, 그 만남에서 느낀 시민들의 일체감과 고양감에 대해서 의미화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한 번 정리한 바 있는 최정운의 분석 중 일부를 빌려와 절대공동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최정운에 따르면 공수부대를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한 항쟁 공동체는 개인과

132) 임철우, 같은 책, 196~197쪽.

133)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370쪽.

전체가 완전히 융합되어버린, 그래서 개인이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전체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절대공동체였다(‘불씨’가 이를 추동한다). 여기는 계급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였으며, 각 개인은 박탈당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존엄한 존재였다.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것” 같다는 한 청년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¹³⁴⁾ 그런데 시민들의 향전을 묘사한 저 장면에서 절대공동체라는 해석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신군부로 대표되는 제도(문명)적 야만(억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덧붙이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시민들이 신군부의 야만적 문명(제도)에 의해 억압되어온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에로스적 혁명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때 ‘에로스’라는 낱말은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마르쿠제의 문명과 억압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마르쿠제는 문명이란 항상 인간의 본능에 대한 영원한 억압에 기초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통찰을 재해석한다. 그는 문명이 인간이라는 유적 존재의 유지와 보존에 있다면 본능 역시 어느 정도 억압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기본 억압과 과잉 억압이 존재한다고 본다. 즉 인간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자연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억압이 있고, 인간의 삶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인위적 억압(어떤 문명 형태)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인위적 억압이다. 과잉된 억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한 인위적 힘이 강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인간의 근본적 힘인 리비도 에너지 즉, 인간 존재의 총체적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을 성기성욕으로 축소하고 자유와 쾌락원칙을 과도하게 억압한다. 때문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본질적인 해방이다. 이는 에로스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로스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누리는 충만한 만족을 원하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카치아피카스는 에로스의 정치적 성격을 에로스 효과로 치환한다. 그에게 에로스의 폭발은 억압적 문명에서 해방되기 위한 본질적 욕망이 널리 퍼져 나간 것이며 이는 수만 명의 시민이 서로 사랑 받는 투쟁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 기존의 사회질서를 극적으로 변형시키려 시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로스가 해방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에로스와 문명은 자유롭게 조화한다.¹³⁵⁾ 따라서 위의 장면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전투환으로 대

134)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5. 113~186쪽. 참조.

135) 임재광, 「마르쿠제의 “생명” 개념 연구—에로스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범한철학』 제41집, 2006, 여름; 한래희,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Vol. 37, 2015; 조지 카치아피카스, 『신좌파의 상상력』, 이재원 외 옮김, 이후, 1999. 참조.

표되는 신군부와 그들의 명령을 받은 공수부대에 의해 자유와 평등, 평화, 존엄성, 사상 등을 억압받은 시민들이 그 억압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이 해방을 추동하는 힘이 ‘불씨’다)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자유로움과 고양감 및 충만함을 느끼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에로스적 효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억압받는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적 서사 모두와 일시적인 해방감을 통해 전율이 일어나는 시민들의 모든 모습을 참조한다. 그런데 이 장면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용문에 나타난 시민들의 모습이 묘사된 하나의 물결, 하나의 불을 말 그대로 비유로 해석하고, 이 같은 결속력과 충일감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저 인용문의 연결 조합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는 언제나 인격을 갖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면서도, 그 수많은 만남들이 하나의 형상 속에서 매개되고 지속할 때 그 만남의 총체적 현실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공동체의 온전함은 오로지 개별적 존재들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 진정한 공동체는 외부의 억압적 힘이나 어떤 특별한 지도자의 강요 속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에 의해 탄생하고 지속된다. 인용문의 시민들은 이미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타인을 위한 분노와 연민의 감정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 같은 어떤 믿음 속에서 타인과 마주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만남 속에서 존재했다(이는 다른 이미지적 서사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떤 거대한 자기 확장고 고양감을 경험했으며(‘불씨’는 이와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그들은 더욱 자발적으로 만남을 추구했고, 서로를 환대했으며 그런 가운데 공동체는 형성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결속력을 얻게 되었다. 시민들의 충일감, 마치 하나가 된 것만 같은 공동체성은 모두 시민들의 인격적 만남이 만들어낸 것이다.¹³⁶⁾ 따라서 이 해석이 요구하는 이미지적 서사는 시민들의 저항 전체의 차원에 육박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지적 서사의 한 조합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보여주며 그 해석을 위해 존재하는 이미지적 서사의 연결 조합이 각기 조금씩 달라져야 했음을 이야기했다. 각각의 해석은 제 자신의 보편적인 층위로 인해 『봄날』에서 그려진 수많은 이미지적 서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해석이 갖는 비슷한 내용 때문에 가용되는 이미지적 서사도 겹친다. 가령 에로스적 효과는 시민들이 억압되는 모든 장면을 망라할 수 있고, 인격적 만남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모든 만남을 망라하며, 항쟁 공동체의 시민들이 느끼

136) 김상봉, 『철학의 헌정』, 길, 2015, 70~90쪽 참조.

는 어떤 흥분이나 떨림, 감격, 놀라움 등을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적 서사는 셋 모두에 포함된다. 특별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이미 각각의 해석이 요구하는 이미지적 서사는 다른 층위의 해석이 요구하는 이미지적 서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이미지적 서사는 어떤 해석소에 의해 존재하느냐에 따라 제 존재론적 지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분석의 대상이다. 『봄날』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폭력적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5.18이 공수부대에 대한 항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데 시민들의 폭력의 성격은 모호하다. 공수부대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와 증오의 폭력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물론 여기에도 ‘불씨’는 들어가 있다. ‘불씨’는 공수부대와 맞서는 시민들을 형질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자, 잠깐만. 우, 우리는 공수가 아닙니다. 31사단 소속이오!”

맨 앞의 병사가 턱을 덜덜 떨어대며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병사들의 군복은 얼룩무늬가 아니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의 눈엔 그것이 미처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 마, 이 새끼들아!”

“저, 정말요. 우리는 방송국을 경비할라고 파견된 31사단 소속이……”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시민들은 한꺼번에 덮쳤다. 한 명 당 시민 몇 명씩 달겨들어 닥치는 대로 차고 때리고 짓밟아대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아아! 내 친구 살려내라! 네놈들이 찍었지. 네놈들이.”

청년 하나가 소리치며, 움켜진 콜라병으로 병사의 머리를 후려쳤다. 누군가 소화기 핀을 뽑아 병사들의 얼굴을 향해 마구 난사했다.¹³⁷⁾

각목과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움켜진 채 그들은 재차 공격을 준비한다.

(……)

누군가 빈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기름이 남아 있었던지, 검은 연기가 확 피어올랐다……“

선두 대열이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이내 폭죽처럼 연달아 터지는 페퍼 포그와 최루탄.¹³⁸⁾

137)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83~184쪽.

138)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91쪽.

“니기미, 저기, 저 MBC부터 각 불질러빠려야 돼라우. 아까, 저 새끼들이 방송하는 거, 안 들었소?”¹³⁹⁾

“세무서다! 세무서에 불을 질렀다아!”¹⁴⁰⁾

“저 새끼들 콧 밀어붙고 들어가잔께! 여러 말 할 것 없이!”

“안되겠구만. 공장이고 뭣이고, 사그리 불을 싸질러버려야제!”

회사의 간부인 듯한 사내가 앞에서 막아보려하다가, 전화를 걸 셈인지 수위실로 허겁지겁 달려들어갔다. 그 틈에 시위대는 막무가내로 정문을 밀어내고 안으로 쏟아져들어갔다.”¹⁴¹⁾

시위대들은 한꺼번에 그들을 에워싸고서, 다이너마이트 운반 차량을 인계하라고 요구했다. 험악한 분위기에 놀란 직원들은 슬그머니 다이너마이트를 내주었다.¹⁴²⁾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인 시민들의 폭력은 그 폭력이 향해야 하는 대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만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 분노와 증오의 폭력은 폭력을 초래한 이유와 무관한 희생양을 찾아내 제 힘을 휘두르기도 한다. 때문에 여기 나타난 시민들의 폭력이 무분별하고 부당한 증오의 폭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수부대의 무분별한 증오의 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31사단의 병사들이나 공수부대는 구분되지 않는다. 병사들의 필사적인 해명도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잠재우지 못한다. “자, 잠깐만. 우, 우리는 공수가 아닙니다. 31사단 소속이오!” 시민들 역시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른다. (무분별해 보이는) 시민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MBC 건물에 대한 방화, 세무서에 대한 방화, 아시아자동차 공장 차량 탈취, 공용버스터미널 버스도 탈취, 화순 경찰서, 역전파출소를 비롯한 여러 파출소 총 탈취, 화순광업소 다이너마이트 탈취. 이 모든 폭력은 대항 폭력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폭력을 막기 위해 자행

139) 임철우, 같은 책, 210쪽.

140) 임철우, 같은 책, 247쪽.

141) 임철우, 같은 책, 341쪽.

142)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130쪽.

된 또 다른 문제적 폭력 아닌가? 그러나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의 폭력이 단지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서 존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당한’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현존 자체가 이미 정당하다. 폭력은 그렇지 않다. 폭력은 본래 도구적이다. 다른 수단들처럼 폭력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통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정당화는 목적과 관계한다. 그 목적이 미래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폭력은 정당하다.¹⁴³⁾ 이는 단순히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성이란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객관적 기준은 ‘본래’ 없다는 데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 지배질서와는 분리된 어떤 소속감, 즉 진정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고자 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무엇으로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혹은 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익명적인 집합적 존재였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모두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고(그들에게 신군부라는 정권을 도와주거나 자신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는 모두 ‘적’과 다를바 없다.) 도래해야 할 미래의 모습 역시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목적과 잃어버린 어떤 인간성 등을 회복해야한다는 정당성으로 존재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정당성을 그들 스스로 끌어안았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적 서사를 연결하면 시민들이 만들어낸 자신들만의 법칙이 도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 해둡시다. 이 자들은 공수가 아닌 것 같소. 31사단 병력이라고 안 하요?”¹⁴⁴⁾

“사람이 부상당해서 죽어갑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우선 목숨은 살려내야 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¹⁴⁵⁾

차량 대열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전병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

143)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김정한 옮김, 이후, 1999, 83~84쪽. 참조.

144)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84쪽.

145)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68쪽.

을 보고, 시민들은 차마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였다.¹⁴⁶⁾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오인된 폭력을 바로 수정했으며, 다친 공수부대원을 병원으로 옮겨주기도 했고, 분노와 증오 속에서 밀고 들어간 차량 시위대는 차마 공수부대를 덮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 내부에서 그들만의 도덕을 만들었고 그 도덕이 올바르다고 결단했으며 그 도덕 내에서 (가끔은 충동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그들만의 도덕 내에서) 움직였다. 따라서 그들의 폭력을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의 폭력이 ‘부도덕’하다면 그것은 지배질서의 관점에서 또는 그들의 폭력을 대하는 다른 관점 속에서만 그렇다. 그들의 폭력은 ‘초도덕’적이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¹⁴⁷⁾

이미지적 서사가 갖는 범례성에 따라 시민들이 인정을 보여주는 모습에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덧붙이면 이 연결 조합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자비의 사랑이다.

숯덩이처럼 까만 얼굴. 극도의 피로와 혼란함을 담은 팽한 두 눈. 땀으로 온몸은 이미 질편하게 젖어 있다. 병사는 손을 들어 올리기도조차 힘겨운 듯, 손가락들을 벌려 입에 대는 시늉을 해보였다.

김상섭은 어쩔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¹⁴⁸⁾

……시민들은 너도나도 환호하고 있었다.……만세. 만세에. 승리의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그때 가까머리의 고등학생 몇이 앞쪽으로 달려나오며 명치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이! 이거 받아요요!”

소년은 팔을 뻗어 무엇인가를 흔들었다.

명치는 영겁결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다. 담배였다. 그러자 다른 시민들도 여기저기서 담배를 꺼내어 트럭 위로 던져주었다.

“계엄군 만세에!”¹⁴⁹⁾

146) 임철우, 같은 책, 311쪽.

147) 지배질서의 바깥에서 등장하는 자들의 객관적 보증 없는 결단과 ‘초도덕’적 폭력에 관해서는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옮김, 난장이, 2011, 275~278쪽. 참조.

148) 임철우, 같은 책, 238쪽.

149) 임철우, 같은 책, 313쪽.

첫 번째 인용문은 공수부대에게 연민을 느끼며 담배를 건네는 장면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적을 물리친 시민들의 환호와 기쁨을 보여준다. 놀랍게도 이곳의 시민들은 “계엄군 만세”라고 외친다. 게다가 시민들의 도덕을 보여준다고 해석된 인용문에 나타난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들을 치료해주기까지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시민들에게 공수부대는 ‘적’이 아닌가. 우리는 공수부대의 폭력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고 있다. 1절에 나타난 공수부대의 모든 폭력의 양상이 이를 증명한다. 시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공수부대가 물러간다고 해서 간단히 해소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뒷보다 “계엄군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폭력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수부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공수부대와 싸우면서 차마 차로 돌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의 안위마저 염려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자비의 사랑이라는 어떤 최대한의 미덕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 보인다. 적마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연민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사랑의 층위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랑은 타인에게 무한한 헌신을 주기도 하지만 타인을 속박하려 들기도 한다. 게다가 대개 사랑은 개인의 차원에 한정된다. 그래서 자비의 사랑이다. 적이 물러가자 적에 대한 증오, 원한, 보복을 멈추는 용서, 우리를 모욕하고 심각한 피해를 끼친 상대에게 악의를 철회하는 마음. 자비는 용서할만한 것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비의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자비의 사랑은 폭넓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으며, 친분을 뛰어넘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순함의 사랑이다.¹⁵⁰⁾ 시민들의 증오와 원한은 이 순간 모두 극복되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사랑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시민들의 자비로운 사랑은 도청 앞 집단 발포 뒤 산산이 깨져버린다. 공수부대를 기어이 몰아낸 뒤의 해방 광주에서, 공수부대 역시 신군부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소수의 몇 사람의 인식과는 별개로, 이 같은 자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은 단 하나도 묘사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했고 시민군이 결성되어 공수부대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해방 광주 이후 중요해진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군부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것인지 투항할 것인지를의 문제였다. 앞서 살핀 융합적 공동체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은 크게 둘로 갈라져 갈등 속으로 들어섰다. 소위 항쟁파는 죽은 시민들과 민주주

150) 앙드레 콩트-스푹빌, 같은 책, 145~161쪽, 319~337쪽. 참조.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투항파는 신군부와의 협상을 통해 그들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봄날』은 이들의 대립이 공수부대가 쳐들어오는 도청 최후의 날까지 지속됨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지금 정부가 사태 원인을 왜곡하고 또 일방적으로 불순분자니 폭도니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데에 대단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정부가 발포 명령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대목에서 군인들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 같은 게 흘렀다. 철딱서니 없기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신부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

“자,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한 막강한 군대요. 명령만 내려졌다 하면, 불과 몇 분 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이겁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하는 경고에 그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야말로 더 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습위원들은 이젠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한시 바빠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를 회수함으로써 계엄군측과의 재협상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인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어찌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은 막아야만 한다.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¹⁵¹⁾

오후 세시경, 광장 중앙의 분수대 위에는 열여덟 구의 시신들이 옮겨져 있었다. 관 위에 똑같이 태극기가 씌워진 시신들. 급조한 어설픈 모양의 관이 옮겨질 때마다 신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곤 했다. 관 두껍이 열려지고, 처참한 시신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더러는 얼굴의 형체조차 안 남은 피

151)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324~333쪽. (65장)

투성이 육신들. 목이 없는 남자도 있었고, 내장이 터져나온 남자, 얼굴이 짓이겨진 단발머리 여고생도 있었다. 그 참혹한 시체들 앞에서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 설움과 충격에 몸서리를 쳤다.

(……)

다음엔 장 모씨가 올라왔다. 사업가인 그는 유신 정권하에서의 정치적 이력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별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7개항을 설명하고 나서, 그런 모든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서 빨리 무기를 계엄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가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러다간 결국 우리가 진짜로 폭도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시내 치안 질서 유지권도 시급히 계엄사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돌연 한 대학생이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소리쳤다.

“당신은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계엄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소.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무조건 투항하자는 말이에요?”

(……)

“상현이형. 저 작자들이 제정신입니까? 시민 대표가 아니라 실은 프락치들 아뇨?”

“쓸개 빠진 것들! 아예 이견 투항 정도가 아니여. 시민들 피와 목숨을 팔아먹자는 짓들이라고”

(……)

윤상현은 기가 막혔다. 수십 년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제 모처럼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하려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또 다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리려는 자들 앞에서, 총칼로 민중의 생명을 제멋대로 참살하는 저 추악한 군부 정권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자는 얘기가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윤상현은 생각했다.¹⁵²⁾

첫 번째 인용문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 있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보여준다. 그들은 수습위원회의 요구인 책임자 처벌과 대통

152) 임철우, 같은 책, 338~351쪽. (66장)

령의 사과 등을 깡그리 무시한다. 그들은 애초부터 협상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굴복이다. 그들은 광주 시민들이 자진해서 무기를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사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정중한 태도로 협박한다. 계엄군의 태도와 압도적인 무력은 수습위원들에게 항쟁의 희망이 없음을 직감하게 한다. 그들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없고 사후 보복을 안 한다는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총을 반납한 이후에야 협상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강요된 화해를 받아들인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인용문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그려져 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은 투항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관에 들어 있는 참혹한 시신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격한 반응은 물론 이거니와 특히 수습위원 중의 한 사람인 장 모 씨의 주장은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역할만 한다. 그는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몰릴 수 있음을 주장하며 한시바빠 시내 치안 질서 유지권을 계엄사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강요된 화해안은 광주 시민들에게 맹렬히 거부된다. “프락치”라는 비난, “시민들 피와 목숨을 팔아먹자는 짓”이라는 비난이 그에게 쏟아진다. 결국 수습위원들이 가져온 화해 안은 “수십 년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제 모처럼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하려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또 다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리려는 자들 앞에서, 총칼로 민중의 생명을 제멋대로 참살하는 저 추악한 군부 정권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항전은 이어져야 한다.

둘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재현적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두 인용문의 대립적 성격을 생각했을 때, 이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만 같다. 묘하게도, 두 번째 인용문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반응과 윤상현의 판단을 볼 때 수습위원들의 모습은 비굴해 보인다. 그들은 정치 사회적인 의식과 신념을 포기한 사람들로 보이고 시민들의 희생의 의미를 모두 망각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은 독재정권을 승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폐기하려는 사람들인가. 그럴 수 있다. 두 인용문만 본다면 윤상현으로 대변되는 항쟁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며 잃어버린 인간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로 보인다. 즉 두 인용문은 진정한 가치를 포기하고 비굴하게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투항파 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거대하고 숭고한 인간적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려는 항쟁파의 대립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을 덧붙이면 이 모든 의미가 뒤바뀐다. 5월 25일 새벽 1시 도청 회의실의 상황이다.

“첫째로, 전세계의 여론은 지금 이곳 광주에 집중되어 있소.……미국 카터

행정부 역시 한국의 민주화가 미국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군부의 강경한 태도를 대단히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 최규하 과도 정권은 점차 진퇴양난의 처지로 빠져 들고 있소.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모든 민주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 내부에서도 상당수 양심적인 고위 장교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조하여 내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문이오.

(……)

셋째, 세계 각국에서 현정부에 실제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 틀림없소.

(……)

넷째, 만약에 현상태에서 계엄군을 외곽에 묶어둔 채로 우리가 앞으로 열흘, 아니 최소한 일주일만 버티게 된다면, 항쟁의 열기는 전라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삼시간에 전국 각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 분명합니다.

(……)

다섯째, 만일 그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한국 군부를 이대로 방치해둘 수만은 없을 것이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있어 사활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오.

(……)

여섯째, 만에 하나, 앞서 얘기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면 끝수록 유리하다는 건 명백하오. 왜냐하면 저들 쿠데타 세력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군부 정권을 세울 야심을 품고 있는 까닭에, 더 이상 국민들을 학살하지는 못할 것이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쉽사리 진압 작전을 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싸움은 결코 광주 시민들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또다시 군사 독재의 기나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아니면 진정한 민주화를 성취하느냐를 결정하는 실로 역사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

“나 역시 제발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 뿐이오……. 설사 그 판단이 모두 정확하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거요. 만약 상황이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계엄군이 당장 오늘 새벽에라도 쳐들어오게 된다면 대관절 어떻게 하겠소?…….”¹⁵³⁾

이 인용문은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항쟁파와 김영길, 정신부로 대표되는 투항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부분이다. 이 이미지적 서사의 재현적 의미는 앞선 장과의 관련 속에서 생성된다. 이미 확인했듯이 투항파는 항쟁의 실패를 기정사실화 한다. 더 이상의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투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군을 믿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믿음’이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다. 총기를 모두 반납한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처벌을 당하고 광주 시민 모두가 폭도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군의 앞도적인 무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광주 시민이 폭도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고 신군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누구도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갈등만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윤상현은 항쟁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6개 달하는 승리 요인과 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통해 항전의 정당성을 만들어낸다. 윤상현이 항전의 지속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렇다. 그가 판단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이 현정부를 비난하며 광주를 응원하고 있고, 그들은 실제로 신군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신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 세력이 있으며 군 고위 장교의 저항도 예상된다. 계엄군을 외곽에 묶어 두기만 해도 항쟁의 열기는 전국으로 파급될 것이며 그렇다면 미국도 더 이상 현 정부를 그대로 놔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군부는 군부 정권을 세울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학살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쉽사리 진압 작전을 개시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모든 일이 윤상현의 뜻대로 풀려 간다면 광주 시민들은 구제되고 수습위원들의 행위는 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미래의 일이다. “나 역시 제발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 뿐이요.” 그 어떤 무엇도 윤상현이 생각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증해줄 수는 없다. 윤상현과 수습위원들 각자의 주장과 상대에 대한 설득은 어떤 개연성을 갖지만 결국 미래의 우연성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될 추정적 합리성의 영역일 뿐이다. 때문에 앞서 분석한 수습위

153)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259~262쪽. (76장)

원들의 모습에 대한 재현적 의미는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항전파와의 대비 속에서 비굴하고 굴종적인 의미를 띠었지만, 어찌면 그들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판단일 수 있다.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힘없는 이념에 휩싸인 의미 없는 열정일 수 있다. 실제로 이틀 뒤, 총과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공수부대에 의해 도청은 함락 당한다.

그렇다면 이 대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해방 광주가 두 파로 나뉘어 각기 저항의 방식을 달리했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를 오직 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이미지적 서사의 조합은 현상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저 의미론적 층위를 초월한다. 그렇다면 이는 수십 만의 생명과 인간적, 민주주의적 가치, 희생당한 이들, 시민들이 보여준 기적적인 모습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지도 부 간의 갈등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내릴 수 있었던 최대한의 판단이 어쩔 수 없는 갈등 관계를 보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진영과 정치적 이념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진영의 대립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봄날』은 이에 대한 현상적 판단 외에 아무런 해석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 『봄날』은 이 둘의 대립을 끝까지 밀고 가기만 한다. 이 둘의 판단이 결국 역사적 우연성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어찌됐든 도청에 최후까지 남은 이들은 소수였다. 결국 그 어떤 도시에서도 광주를 위해 달려와 주지 않았다. 광주는 외로운 곳이었다. 항전은 결국 실패했다. 마지막까지 싸운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채 총을 쥐고 있었다.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확실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군부에 맞섰다는 점에서 영웅적 결단을 했다. 그들로 인해 광주 항쟁의 의미는 더 숭고해졌다. 그러나 김영길과 정신부로 대표되는 투항파의 선택과 결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비겁자라는 오명을 무릅쓴 그들의 행위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미래는 가혹하다. 미래는 도착했을 때에만 필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모든 선택을 (상대적 선택이 아닌) 절대적 선택으로 만든다. 두 선택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는 애초부터 없다. 역사적 책임은 어떤 누군가의 책임으로 환원되지 않아야 한다. 항쟁에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는 한 영웅과 비겁자는 나눌 수 없다.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편에 서고 여러 관계를 분석하며 어떤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다. 우리는 결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행위와 주장은 자신이 도래해야 할 미래라고 가정된 모습을 끌어 업고 있을 뿐이다. 이는 『봄날』에서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이다. 해방의 가능성은 인간의 변혁 의지와 도래해야 할 미래를 위한 환경적 조건이 완료됐다는 징표 속에서 도래하는 게 아니다. 그 둘은 반드시 역사적 우연성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즉 변혁(해방)을 위한 인간의 의지와 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우연성은 서로를 구제하고 규제하는 보로메오의 매듭이다. 그 셋의 방향이 일치할 때 사회변혁은 일시적으로 완성될 것이다.¹⁵⁴⁾

마지막으로 살필 저항성의 의미는 인간성이다. 1장에서 살핀 바 있듯이 시민들의 저항은 민주주의보다, 자유나 정의보다 우선 인간성을 위해 존재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세상’에서 인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수부대와 싸웠다. 그들의 신념은 거창한 이념적 대의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항전을 끌고 나가는 정신이 민주화나 자유 같은 거창한 이념이 아닌 이유는 어쩌면 민주주의나 자유, 해방 담론의 주인처럼 굴었던 수많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광주를 빠져나가거나 숨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항쟁이 인간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야만 한다. 사실 ‘인간성’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인간성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낱말이다. 인간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술어를 포함한다. 아주 간단히 말해 인간은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하는 존재인데, 바로 그 정신적 활동을 하는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규명해야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풀릴 수 없는 의문이며 『봄날』 역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봄날』이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봄날』에 실린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것뿐이다. 한데 이는 이미 다 분석된 것이 아닌가. 본고에서 지금까지 분석해온 모든 것은 공수부대와 대비되는 시민들의 모습 아닌가. 예컨대 공수부대가 보여준 증오, 파멸, 분리, 존엄성과 사회적 의미망에 대한 파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의미망의 파괴, 결국 어떤 ‘해체’가 시민들의 인간성의 파괴와 연결된다면, 이에 대립되는 시민들의 동질감, 유대감, 고향, 유년의 기억, 어머니, 타인을 위한 연민·분노·슬픔 등의 가치 계열, 결국 모두가 연결되어 존재하는, 모두가 모두를 위해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존엄성을 인간성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인간성이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

154) 역사의 우연적 성격에 관해서는 메를로 폰티,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참조.

상적인 자연 상태의 모습¹⁵⁵⁾, 인권의 회복¹⁵⁶⁾, 휴머니즘¹⁵⁷⁾ 등을 본다. 결국 『봄날』이 이 미지적 서사로써 존재하는 한 인간성의 의미론적 층위는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상잔의 비극과 극복의 의미론적 증식

본고는 5.18이 상잔의 비극이라는 점을 1장에서 밝혔다. 『봄날』에 등장하는 몇몇 주요 인물들은 시민들과 공수부대의 진정한 적이 공수부대의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의 정치적 권력 의지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은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상잔의 비극이 군인들 간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엔 사방에서 엄청난 총알이 폭포처럼 날아들기 시작한다. 화력 규모로 보아 수백 명. 사격 지점이 대체 어딘가! 정면, 아니 전방 좌측, 우측? 정확하게 분간조차 안 된다. 평, 퍼평, 평. 수류탄까지 동시에 날아든다. 순식간에 주위는 아수라장이다. 장갑차는 완파되고, 선두의 트럭 너 대가 박살났다. 즉사한 시체들이 여기저기 나뒹군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 화약 냄새, 총성, 연달아 터지는 수류탄의 폭음, 부상자들의 비명, 아우성…… 로켓포에 앞부분이 날아가버린 지프엔 운전병이 핸들 위에 엎어져 있다. 중령이 무전기를 움켜쥐고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댄다.

“무장 헬기 지원! 헬기 지원! 뭐, 뭐얏! 이 씨발놈들아, 내 새끼들 다 죽는단 말이다얏!”

미친 듯 악을 써대는 중령. 얼굴과 어깨는 이미 피투성이다.

(……)

“장군님. 야단났습니다. 폭도가 아니라, 아군의 오인 사격입니다.”

“오인사격!”

“예. 그게, 폭도가 아니라 보병학교 교도대였습니다.”

“뭐, 뭐야!”

여단장은 눈앞이 노래졌다. 이미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했다.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야.”

155) 성민엽, 같은 책, 327쪽.

156) 전성욱, 같은 논문, 90쪽.

157) 이현식, 같은 책, 392~393쪽.

“폭도들이 이쪽으로 다수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매복중이었습니다. 폭도들도 장갑차를 탈취해서 타고 다니는 판이고 또 군복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부대를 폭도로 오인한 모양입니다.”¹⁵⁸⁾

이 장면은 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교도대 간의 오인사격을 묘사하기만 한다. 여기서 그들은 서로를 폭도로 오인하고 서로에게 총과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다. 순식간에 즉사한 시체들이 나뒹굴고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피어오르며 사령관의 고함과 전우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비명이 터진다. 탱크와 총알이 쉴 새 없이 퍼부어지고 90밀리 무반동 총과 특공조가 투입된다. 서로가 누군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교전은 반시간 동안 이어진다. 결과는 끔찍하다. 사망자가 5명, 중상자가 11명, 경상자가 11명 나왔으며 전투가 벌어졌던 마을에서는 결국 보병학교를 물리친 공수부대의 원한과 증오에 의해 학살이 벌어진다. 주남마을은 단 한 명의 생존자를 제외한 채 모두 몰살된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거대한 권력 의지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가장 아이러니하게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 군인들은 오직 신군부의 정치적 권력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고, 극도의 긴장 상태와 경계 태세 속에서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를 죽였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이자 희생자일 뿐이다. 그러나 74장의 저 모든 모습들은 아무런 해석 틀 없이 단지 묘사되기만 한다는 점에서 도식화된 해석 틀을 넘어 선다.

다시 말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가 사실은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이었다는 급격한 반전, 그 오인 사격에 의해 희생을 치른 공수부대가 막무가내로 사살한 마을 사람들. 이는 정치적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상잔이 아니라 전쟁 상태 자체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전시 상태에서 우발적 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뒷보다 공수부대와 시민들의 전투에서 폭력의 우발적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상잔의 비극을 보여준다고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이미지적 서사와 연결됨으로써 얼마든지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상잔의 비극을 극복하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가정된 부분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봄날』이 보여주는 것은 낙일도의 비극과 5.18이다. 때문에 『봄날』 전체를 상잔의 비극으로 명명할 수 있고, 5.18을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상잔의 비극에 대한 극복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시민들의 저항이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상잔의 비극의 원인에 대한 극복

158)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196~212쪽. (74장)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시민들이 참된 나라를 위해, 존엄성과 인간성을 위해, 항쟁 공동체를 이뤄서 초도덕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상잔의 비극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상잔의 비극과 그 극복이라는 의미론적 차원은 다른 이미지적 서사와의 연결을 통해 제 자신의 몸피를 끝없이 불리는 셈이다.

그러나 『봄날』이라는 소설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할 때, 공수부대의 폭력과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상잔의 비극보다 더 큰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봄날』을 공수부대의 비인간성과 인간성의 대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부정의와 정의의 대립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5.18이 ‘불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불씨를 부각시켜 『봄날』을 규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이 모든 저항의 모습에서 제도를 뛰어넘은 이상적인 자연 상태의 모습¹⁵⁹⁾, 악한 세계에 대한 거부, 갈등과 증오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¹⁶⁰⁾, 인권의 회복을 위한 투쟁¹⁶¹⁾, 인간과 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¹⁶²⁾,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한 휴머니즘의 발현과 억압과 폭력에 대항한 민주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연대¹⁶³⁾를 본다. 이러한 판단은 체계적으로 논증되지 않은 채 제시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핀 이미지적 서사에서 그 주장들의 근거가 될 새로운 조합을 밝히지 못할 바도 아니다. 때문에 상잔의 비극과 그 극복이라는 1장의 재현적 의미는 『봄날』 전체를 종속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봄날』의 서사는 범례적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재현적 의미의 권위도 부정할 채 새로운 재현적 의미를 끝없이 생성할 뿐이다. 이것이 『봄날』이다.

III 결론

1980년 5월 이후, 소설은 5월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야 했다. 5.18이라는 거대한 외상적 사건은 왜곡되어 퍼져 있었고 심지어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소설은 5.18에 대한 사실복원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이어야 했다. 5월 문학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소설로 홍희담의 『깃발』과 임철

159) 성민엽, 같은 책, 327쪽.
 160) 양진오, 같은 책, 81쪽.
 161) 전성욱, 같은 논문, 90쪽.
 162) 정호웅, 같은 책, 311쪽.
 163) 이현식, 같은 책, 392~393쪽.

우의 『봄날』을 등록했다. 『깃발』은 사회학적 접근의 모범이었고 『봄날』은 5.18을 역사학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복원한 작품이었다.

이들 소설은 종종 5월을 새로운 형식 속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소설과 비교되기도 했다. 사실 규명의 작업을 통해 5월의 성격을 포착하려 했던 이들 소설과 달리 최윤과 한강의 소설은 5월의 성격을 병리적인 차원에서,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포착했다. 10개의 절로 이루어진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¹⁶⁴⁾는 각각의 절마다 변화하는 시점과 문체를 갖고 있으며 모든 절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정신병리적 상태를 만들어낸 부재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끔찍하게 맴돌기만 한다. 5월은 다층적인 시점과 문체 속에서 복잡하게 얼크러지며 공백으로 환기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¹⁶⁵⁾는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이야기의 단편들이 일반 글꼴과 이탤릭체를 오가며 비선형적으로 펼쳐져 독자에게 우발적이고 충격적인 몽타주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소설에 나타나는 5월 광주의 몇몇 모습들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건에 대한 어떤 (불)가해성, 증언의 (불)가능성 속에서 존재한다. 『소년이 온다』에서도 5월의 실체는 공백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제 『봄날』은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봄날』은 5.18이라는 사건과 그에 얽힌 사람들의 심리 혹은 내면을 역사학적인 층위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론적인 차원을 파악하게 하는 서술을 최소화함으로써 제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원고지 7000여매에 이르는 이미지적 서사는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정동affect을 증폭시키며 자신과 5.18이라는 사건성 전체를 무한히 변화시키고 움직였다. 『봄날』의 전체에서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의 묘사와 서술 그리고 논평들은 『봄날』의 감각 인상적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론적 장소들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재현적 의미는 끝내 잔존하는 이미지적 서사 속에서 종결되지 않고 끝없이 생성되었다. 『봄날』은 5월에 접근하는 낯선 형식을 통해 5.18의 재현적 의미를 무한히 증식하는 동시에 5.18을 체험하게 하려 했다. 『봄날』에서 5.18은 그 어떤 의미에서의 5.18도 아닌 5.18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고 생경한 글쓰기는 왜 필요했을까. 임철우는 왜 5.18을 무한한 해석과 체험을 만들어내는 형식 속에서 존재하게 했을까. 『봄날』이라는 작품이 갖는 의의와는 별개로, 그건 어쩌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태, 인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린 거대한 사태, 언어가 철저히 무력해져버린 그런 트라우마적인 사태를 지시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형식은 문학이 역사적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양소설의 형식이 근대화된 유럽의 분화를, 서로

164)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1.

165)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구분되는 세계관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식이었듯이¹⁶⁶⁾, 이미지적 서사라는 형식은 5월을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증언하는 동시에(『봄날』이 쓰였을 당시에도 5월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바로 그 재현의 언어가 갖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5월을 체험하게 하는(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장 정확한 형식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언어는 언어를 통해 언어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다). 그리고 어찌면 그것이야말로, 임철우 개인의 트라우마를 소설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166)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옮김, 문학동네, 2008, 7~22쪽.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1997.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임철우, 『봄날5권』, 문학과지성사, 2010.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2000 여름.
 임철우 외, 「아래로부터의 문학사」, 『실천문학』, 2013 겨울.
 임철우 외,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 사회』, 2014 여름.

2. 논문 및 평론

- 박옥심, 「임철우 소설에 나타난 광주항쟁 형상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5. 석사학위 논문.
 서영채, 「『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성민엽, 「불의 체험과 그 기록」,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2004.
 심영의,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박사학위논문.
 왕 철,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이지영, 「운동-이미지와 운동의 통일성」, 『철학사상』 3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이현식, 「1980년의 봄날로 가는 고통과 희망의 기록」, 『실천문학』 1998 여름
 임채광, 「마르쿠제의 “생명” 개념 연구—에로스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범한철

- 학』 제41집, 2006, 여름
- 전성욱,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동아대학교 2013 박사학위논문.
-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 정명중,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 5월소설 속의 ‘룸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 정호웅, 「기록자와 창조자의 자리-임철우의 『봄날』론」, 『작가세계』 1998 여름
- 한래희,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Vol. 37, 2015.

3. 단행본

1) 국내

- 김동춘 외, 『반공의 시대』, 안인경 외 옮김, 돌베개, 2015.
- 김상봉, 『철학의 헌정』, 길, 2015.
- 양진오,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 열림원, 2003.
-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2016 4월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5.

2) 국외

- 니콜라스 디폰조 외, 『루머 심리학』, 신영환 옮김, 한국산업훈련연구소, 2008.
-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7.
- 레나타 살레클,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b, 2003.
-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 메를로 폰티,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옮김, 갈무리, 2015.
-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계』,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1.
- , 『가상과 사건』,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6.

-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옮김, 난장이, 2011.
 앙드레 콩트-스폰빌, 『미덕이란 무엇인가』, 조한경 옮김, 까치, 2012.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7.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01.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난장, 2012.
 자크 아순, 『증오의 모호한 대상』, 김승철 옮김, 동문선, 2002.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안미현 옮김, 길, 2012.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 항 옮김, 새물결, 2009.
 조지 카치아파카스, 『신좌파의 상상력』, 이재원 외 옮김, 이후, 1999.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랩, 2016.
 —————,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12.
 질 들뢰즈, 『시네마1 운동-이미지』, 유진상 옮김, 시각과 언어, 2002.
 —————,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9.
 질 들뢰즈 외,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옮김, 갈무리, 2014.
 케네스 레이너드 외, 『이웃』, 정혁면 옮김, 도서출판b, 2010.
 크리스토프 멩케 외, 『인권 철학 입문』, 정미라 외 옮김, 21세기북스, 2012.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옮김, 문학동네, 2008.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김정한 옮김, 이후, 1999.
 —————,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11.